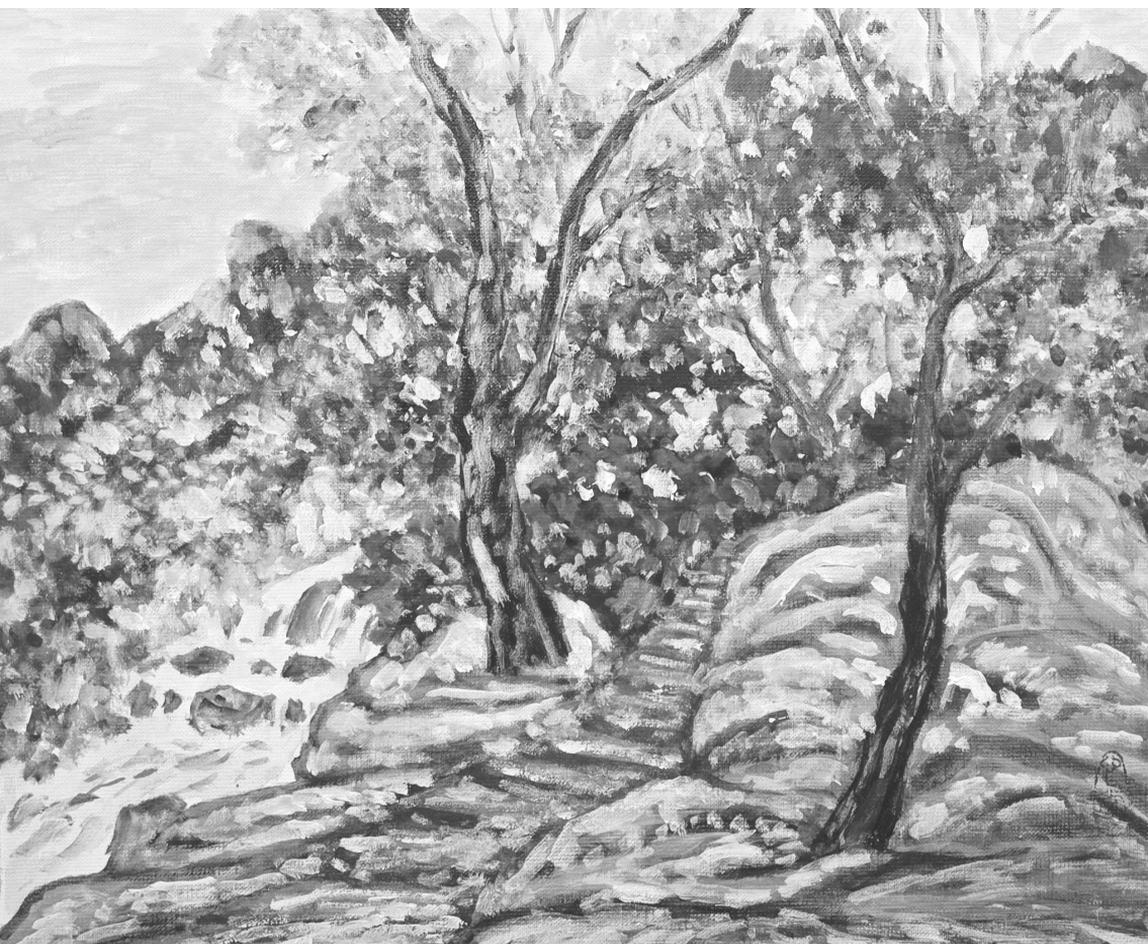


중구문예

2025



서울중구문화원

《중구문예》 33호를 발간하며



남 월 진 | 서울중구문화원장 |

올 해로 《중구문예》가 제33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문예지를 발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중구 곳곳에서 묵묵히 삶을 살아가며 그 경험과 감정을 글로 담아 보내 주신 중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중구문예》는 중구민을 대상으로 시, 수필, 산문, 일기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공모하여,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그 작품을 한 권의 문예지로 묶어 발간하는 지역 문학지입니다. 해마다 수많은 구민 여러분께서 응모해 주셨고, 그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의 풍경과 삶의 무게, 그리고 일상 속에서 피어오른 작은 기쁨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글 한 편 한 편은 삶의 흔적을 기록하는 소중한 문학의 씨앗이자, 지역 문학의 얼굴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제33호 문예지를 펼쳐 보면, 우리 중구민들의 문학적 감성이 얼마나 풍부한가를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담백하고, 때로는 격정적이며, 때로는 소박한 문장 속에 그동안 마음속 깊이 간직해 온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흔적이 모여 《중구문예》는 어느덧 서른세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문화의 힘이며, 무엇보다도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중구민들의 성숙한 문화 감수성이 만들어 낸 값진 결실입니다.

아울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정성껏 작품을 창작해 보내 주신 모든 응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정하고 세심한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중구문예》는 해마다 더 단단하고 풍성한 문학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구문화원은 《중구문예》가 지역 문학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더 많은 중구민들이 문학을 가까이하며 창작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담아낼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문학지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언제나 든든한 여러분의 편



김길성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든든한 여러분의 편’ 중구청장 김길성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삶과 감성이 고스란히 담긴 《중구문예》 제33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구문예》는 해마다 수필과 소설, 시 등 다양한 문학 작품을 통해 주민 여러분의 일상과 이야기를 담아내며 우리 중구의 오늘을 기록해 온 소중한 문학지입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향한 마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한 권의 책에 담긴 주민 작가 여러분의 글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따뜻한 마음과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줄 것입니다.

《중구문예》가 앞으로도 지역의 삶과 정서를 품은 소중한 문학의 장



으로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김도경 한국여성문예위원장님과 남월진 중구문화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소중한 작품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주민 작가 여러분께도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 번 《중구문예》 제33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주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문학으로 이어지는 이 소중한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중구문예》 33호 발간을 축하하며



윤 판 오 | 중구의회 의장 |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의장 윤판오입니다. 먼저 우리 중구문화원과 한국여성문예원이 함께 참여한 《중구문예》 33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발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신 중구문화원 남월진 원장님과 한국여성문예원 김도경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기관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 뜻깊은 결실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구문예》는 중구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창작한 작품들이 담긴 귀중한 책자입니다. 수필, 시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이 어우러져 우리 중구의 문화적 자긍심을 더욱 높이는 소중한 기록이자, 구민들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소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33호 역시 중구민 여러분의 풍부한 상상력과 창작의 열정이 고



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지역의 작은 이야기들이 이 책자를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퍼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하며,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중구문예》 33호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AI시대 문학의 역할



김도경 | 한국어성문예원 원장 |

2025년 한 해를 마감하며 《중구문예》 33호를 발간하는 작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눈부신 시대의 흐름은 많은 발전을 거듭하는 수레바퀴처럼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인간의 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뜻이 말입니다.

허나 오늘 읽혀지는 또 한 편의 시는 과연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미국 작가 수전 손택(1933~2004)은 ‘문학을 읽어야 되는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학은 현실을 탐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다.”

“예술은 우리의 상상력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수단이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계속해서 배워야 하며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몇 가지 구절 중에서 『해석에 반하여』라는 저서 관련 인터뷰 할 때, 수전 손택은 “훌륭한 소설은 감정을 길러주는 학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문학이 존재하고 필요로 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물론 창의성과 자신의 만족과 힐링도 중요하나 '감정'이라는 말은 단지 본인의 회로애락이 아닌 동시대 함께 살아가는 부모, 지인, 이웃과의 만남, 소통에서의 감정이라고 봅니다. 그 감정은 상대와의 소통뿐 아니라 공감대 형성이나 배려에 대한 마음을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 각자의 삶, 혼자의 삶의 방식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생활에서 필요한 '마음의 절실한 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이 중요하다면 '당신'과 '우리'의 삶을 즐겁고 값지게 하는 것은 진정한 감정입니다.

시 한 편, 소설 작품이 위안이 되고 감동을 준다면 그 감동은 나로부터 더 넓게 퍼지는 파문으로 변화의 삶을 준다고 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푸시킨의 시처럼 현실의 삶을 잘 살기 위한 힘을 '문학'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살아가는 지혜뿐 아니라 감동이 전달되는 감정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운 시간이 됩니다.

문학의 그 의미와 가치는 인류의 미래에도 인간의 감정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2025년 문학의 참가치를 아시는 김길성 중구청장님, 문화의 힘을 누리게 하시는 남월진 중구문화원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분들, 한국여성문예원 이사님들, 회원분들 감사합니다.

편집을 도맡아 한 시인 이이향 님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새해도 중구민, 중구문화원 회원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병오년 한 해가 시작됩니다.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12월

올해의 문학인



문학평론가 이승원 서면 인터뷰
-독자의 마음을 고양하는 지혜와 반성의 자원

문학평론가 이송연 서면 인터뷰

—독자의 마음을 고양하는 지혜와 반성의 자원

일시: 2025년 11월

인터뷰 형식: 전자우편을 통한 서면 인터뷰

- 1986년 《한국문학》으로 등단.
- 저서 『백석 시, 백 편』, 『시 읽는 마음』, 『김중삼의 시를 찾아서』, 『미당과의 만남』 등

선생님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도 《중구문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 선생님께서 2025년 올해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 가입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접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먼저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예술원 회원에 대한 소회나 선생님 근황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서울여대를 정년퇴직한 후 소속감이 없었는데, 몇 분 지인께서 예술원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권하셔서 지원했습니다. 대한민국예술원은 국가가 보장하는 한국의 대표급 예술가들의 모임이라 내가

자격이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평론 활동을 한 지 40년이 되었고 시 비평에만 전념한 특징이 있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다행히 예술원 선임 회원들이 잘 봐주셔서 통과되었습니다. 회원이 되고 나니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예술원에서 맡기는 일을 하면서 종신토록 문학에 종사하면 되는 것이니 마음이 편할 수밖에요.

Q: 선생님께서는 『한국시문학의 비평적 탐구』(1985년)를 비롯해 『동주 시 백편』(2025년) 등 최근까지도 다수의 평론집을 씀 없이 출간해 오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는 한국 현대시 문단의 흐름을 간단하게 짚어 주신다면 어떻게 요약될 수 있을까요?

A: 한국 현대시는 나라가 망해가는 국권 상실기에 시작되었기에 처음부터 민족과 역사라는 굵직한 주제를 시에 수용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서정시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그 서정의 내부에는 우국충정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분단과 전쟁의 혼란이 지속되었으니 그 흐름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요. 겉으로는 순수 서정의 형세를 취했지만, 그 안에는 현실과 인생 문제에 대한 지향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를 넘어서서 한국 사회가 산업화에 진입하자 비로소 몸이 가벼운 모더니즘 시, 형식을 실험하는 해체시가 등장했어요. 2000년대를 넘어서자 소위 미래파라고 명명된 아주 이질적 경향의 시들이 무리를 지어 창작되었지요. 이에 대한 반발로 순수 서정시가 힘을 얻어 역주행하기도 했지만, 젊은 시인들은 이미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유와 상상력을 구사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후퇴는 없을 것입니다. 나이 든 시인들은 젊은 시인들의 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젊은 시인들은 나이 든 시인들의 시에 새로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대 간의 간격이 아주 커졌지요. 2000년대의 젊은 시인들이 이제 오십 대가 되었는데 여전히 어려운 시를 쓰는 것을 보면 순수 서정시는 이제 그 영역을 넓히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Q: 현재까지 선생님께서 문학 작품을 대할 때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시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A: 저는 실험적 해체시가 등장하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줄곧 서정시 옹호론을 펼쳐 왔습니다. 왜냐하면 서정시가 시의 기본이고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서정시는 우선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닙니다. 서정시에 담긴 진실한 정서와 독특한 사유는 독자의 마음에 깊은 각인을 남깁니다. 그 정서적 각성은 독자의 마음을 고양하고 지혜와 반성의 자원으로 독자를 이끕니다. 이것이 서정시가 갖는 윤리적 기능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서정시를 옹호하고 서정시가 많이 읽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Q: 작가는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오가며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기도 합니다. 이런 작품들이 평론과 비평의 세계를 거치면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더불어 독자들에게는 좀더 작품의 이해도를 넓힐 수 있는 지평을 마련하게 할 텐데요. 평론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이런 역할들이 작가나 작품 또는 독자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시는지요?

A: 평론은 독자들에게 좋은 작품을 소개하면서 그 작품이 어떤 면에서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 비평은 제대로 된 비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작품을 분석하지 않고 이론의 구조만 그럴듯하게 쌓아 올리는 비평은 비평의 중요한 기능을 놓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대로 된 비평이 지면에 실려도 독자가 읽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문학지를 편집하는 사람들은 기획 특집 난을 마련해서 평론을 신도록 주선해야 합니다. 1970년대 《창비》와 《문지》가 발전한 데에는 평론이 큰 역할을 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품을 쓰는 사람들은 문학지에 실린 비평에 관심을 기울이고 평론 문장을 세심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의 영역도 확장되고 시야가 넓어져서 자신의 창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Q: 선생님께서는 백석과 정지용 시 연구에 특히 많은 역량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독자들에게도 두 시인은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특별히 이 두 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정지용은 한국 현대시에 새로운 감각을 도입하여 현대시다운 현대시를 선보인 시인입니다.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제 강점기의 시는 민족 현실에 대한 강박감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정지용도 물론 이런 의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 단계를 넘어서서 시가 언어나 표현만으로도

성립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품으로 그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대상에서 얻은 감각을 독특한 표현과 개성적 언어로 드러내면 그것만으로도 시가 된다는 사실을 완성된 작품을 통해 보여 준 것입니다. 이러한 문학사적 중요성 때문에 정지용 시를 중시한 것입니다.

백석은 토속적 풍물을 토속적 언어로 표현했는데, 그 대상의 내부에 중요한 정신적 가치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백석은 이 사실을 직접 진술하지 않고 어떤 정황을 통해 저절로 드러나도록 배치했습니다. 시는 발언이 아니라 표현이라는 점을 실천한 것이지요. 이러한 암시적 방법으로 인해 백석의 시는 많은 것을 연상시키고 다양한 해석을 유도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백석 시 전편 해설을 써서 독자들에게 안내 역할을 한 것이지요.

Q: 선생님께서 오랜 시간 평론 활동을 해오시면서 가장 기뻐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의 기대나 계획하신 일들은 어떤 모양인지도 궁금합니다.

A: 대학 전임이 일찍 되어서 논문을 통해 문학론을 발표할 수 있으니까 평론 활동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그래도 현장 비평의 감각이 있어야 문학 연구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선배의 권유를 따라 평론가로 등단했습니다. 평론가로 등단해서 몇 편의 글을 썼더니 반응이 좋아서 계속 원고 청탁이 들어왔고, 글을 쓰다 보니 재미도 있고 평론의 중요성도 알게 되어서 더 열심히 썼습니다. 학술 논문보다 평론을 훨씬 많이 썼지요. 내가 좋아서 한 일인데 문학상까지 주니 더 힘이 났습니다. 평론가로서 상을 많이 받은 편이지만 제가 청탁

을 하거나 요청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영화배우가 그러 더군요. 어떻게 하면 상을 받나를 생각하지 말고 그저 연기만 열심히 해라. 그러면 상은 저절로 따라온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술원 회원이 된 후 시집 해설이나 문예지의 신작 특집 해설은 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어떤 시인을 보조해 주는 작업인데 이제 그런 일은 보류하고 주제를 가진 평론만 쓰고 싶습니다. 『백석 시 백 편』, 『동주 시 백 편』에 이어, 『지용 시 백 편』을 쓰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고, 시에 나오는 독특한 시어의 의미를 해설하면서 문해력과 어휘력 증진을 도모하는 교양서를 구성해 보라고 해서 그 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글 쓰는 속도가 느려졌지만, 이 두 책은 내년까지는 꼭 내야 할 것 같습니다.

Q: 연간지로 발행되는 《중구문예》가 올해로 33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중구민의 문학적 감성과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된 문예지로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귀한 명맥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중구문예》와 독자들에게 바라는 바나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요즘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 문학 운동이 활기를 띠입니다. 그 지역만의 문학을 연구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학 창작에 힘을 기울이지요. 《중구문예》도 ‘중구’라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학이 어떤 것이 있을까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중구 지역에서 활동한 중요한 문학인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문학적 특성을 제시하고 중구의 사회적·문화적 특성이 문학 창작에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지 연구해서 그러한 방향의 창작도 시도해 보면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중구문예》의 개성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모여 찬란한 성좌를 펼치듯 개성적 지역 문학이 모여 보편적이고 거시적인 한국문학을 형성할 것입니다.

□ 편집·정리: 이이향

특별기고



●중구문화원 개원 30주년●

함께하는 30년! 함께할 30년을 위하여 | 김광시

중구문화원 개원 30주년 회고 | 김동주

함께하는 30년! 함께할 30년을 위하여

—중구문화원 개원 30주년 회고

김광시 | 중구문화원 이사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은 1993년 지방문화진흥법이 제정되고, 김영남 설립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를 구성 출범하였다.

출범 30년. 중구문화원은 지역 문화의 뿌리를 다지고 새로운 문화 창출의 발판이 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행사와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특히,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향토사 발굴 등과 같은 문화 콘텐츠 개발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구민과 함께한 지난 30년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열정의 결실이다. 앞으로도 중구문화원은 지역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더 많은 문화 사업과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구민 모두가 문화의 즐거움과 자긍심을 높여 나가는 위대한 발걸음을 내디디게 될 것이다.

또한 차세대 문화 인재들을 육성하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 교류의 현장을 마련하여 우리 문화의 지속 가능한 도약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함께한 30년, 중구문화원을 설립, 출범시킨 김영남 초대원장(2대 원장 역임)을 비롯하여 3대 남상만 원장님(4대 원장 역임), 5대 소수영 원장님, 6대 김장환 원장님(7대 원장 역임), 8대 이종철 원장님, 9대 남월진 원장님(10대 원장 역임)들의 노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30년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구민 모두와 함께 축하드리며, 지난 2025년 9월 12일(금, 15:00~17:00) 신당누리센터에서 각계각층 많은 중구문화 시민들이 함께 모여 중구문화원 설립 30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이루어졌다.

• 지난 30년간 꾸준히 주민과 함께한 문화원 주요 행사는

1. 문화재 탐방교실 운영

덕수궁, 환구단, 남산성곽, 장충단공원, 광희문, 정동 지역의 근현대 유적·유물들을 널리 알려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공존하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문화재 탐방교실을 운영, 미래 세대에게 문화의 위대함을 심어 왔다.

2.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경기민요, 문예창작, 어반스케치, 서예 교실 등 9개의 문화 강좌를 통해 지역 구민의 일상생활에 예술과 문화를 꾸준히 접목시켜 왔음.

3. 《향토사》, 《중구문화》, 《중구문예》 등 지역 문화의 기록과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지역 향토사를 발간하고, 중구의 어제와 오늘을 담아 내일의 문화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중구문화와 중구사진공모전, 도록 발간, 문인들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구문예·문학 등 발간 출판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여 왔음.

4. 지역 미술인협회 등 예술 단체, 예술인 지원 육성 발굴을 위한 중구미술인 중심전 개최, 무형유산작품전시회, 나누림예술마당 운영 등을 통하여 누구나 문화를 가까이서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꾸준히 마련하여 왔음.

5. 장충단추모문화제, 명동시낭송콘서트, 환구단추모제, 남산자락

숲길문화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새기고 공동체의 숨결을 이어 가는 소중한 문화의 연대를 확장 발전시켜 일상 속에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현장으로 이어 내려왔으며

6. 이러한 30년간의 각종 사업과 주민과의 문화 공유를 한데 묶어 개원 30주년 기념 특별 행사를 마련하였음.

•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 ① 지난 2025년 5월 31일(토) 리마인드 웨딩 행사는 중구에 거주하는 결혼 30년 이상 된 3쌍의 부부를 선정, 중구문화원 갤러리에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 전통 혼례 방식으로 리마인드 웨딩 행사 개최.
- ② 2025년 6월 14일(토) 남산자락숲길 어린이 그림일기쓰기 대회
- ③ 2025년 7월 1일(화)~7월 8일(화) 미술인협회 소품전
- ④ 2025년 8월 27일(수) 어르신글짓기 대회
- ⑤ 2025년 9월 8일(월)~9월 19일(금) 미술장터 운영-어반스케치와 캐리커처 유명 작가인 윤코 선생님과 문화원 수강생들의 미술 작품 특별 전시와 작품당 10만원 이하로 판매하는 미술장터 운영
- ⑥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만남을 주제로 하는 한글조형아트작가 서미숙 님의 세종과 이순신 한글조형아트특별전시회를 2025년 9월 20일(토)~10월 3일(금)까지 개최.

위와 같은 다채로운 30주년 행사를 토대로 삼아 앞으로의 함께할 30년을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가꾸어 문화강국·문화민족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중구의 미래를 모두 함께 약속하였다.

중구문화원 개원 30주년 회고

—함께한 30년, 함께할 30년

김동주 | 중구문화원 전 사무국장, 이사, 향토사학자

문화 사업에는 여야나 남녀노소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1995년 7월 어느 날, 중구문화원이 9월 중순 개원 예정이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은 것을 계기로 문화원 개원 준비부터 함께하게 되었다.

중구문화원은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되던 해,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태동했다.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명칭과 위치 등을 논의한 끝에 ‘남산문화원’, ‘구민회관’ 등의 안이 거론되었으나, 당시 김동일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김영남 초대 문화원장님 및 임원진의 노력으로 ‘중구문화원’으로 명칭을 확정 지었다. 장소는 남산동 2가 9-6번지 2~4층을 사용하기로 하고, 기금 모금을 전개하여 4억1천3백5십만 원을 모으는 성과를 거두었다.(이후 민간 기금 모금이 한계에 봉착하자 1998년부터 구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17억 2천6백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김동일 청장님도 개인 기금 1백만 원을 기부하며 힘을 보탰다.)

1995년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해였다. 이에 발맞춰 문화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중구문화원은 7월 28일 창립총회를 거쳐, 1995년 9월 14일 “서울의 중심, 문화의 중심”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개원하였다.

이어진 첫 이사회에서 규정과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원칙, 변화, 창

의’를 원훈으로 삼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먼저 향토사연구위원회 발족을 위해 연희동 시사편찬위원회를 방문, 박경용 박사로부터 자문을 구해 ‘중구향토사연구위원회’를 발족했다. 첫 사업으로 이순신 장군의 생가터에 대한 고찰을 시작했으며, 그 결실이 이어져 올해 중구향토사자료 제24집 『중구가 만든 노래, 노래가 그린 중구』가 발간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96년부터 문화교실, 문화재 탐방 교실, 중구문예, 사진 공모전 등 고유 목적 사업을 시작했는데, 특히 문화재 탐방은 필자가 향토사학자로서 10만여 명에 이르는 학생과 시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교육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 기억에 남는 일·1

‘시련 속에 피어난 남산원과의 인연’ 통합복권 공모사업으로 남산원 원생들과 함께 1박 2일 충남 예산 체험 답사를 다녀온 일이 기억난다. 수덕사, 추사 김정희 생가, 한과 및 과일 따기 체험, 대형 온천 물놀이 등을 진행했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원생들을 가르치시던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열성이 아직도 생각한다.

남산원 아이들과의 인연은 그해 송의음악당 열린음악회에 원생과 선생님 모두를 초대하며 계속 이어졌다.

• 기억에 남는 일·2

‘열정과 땀으로 일군 현장들’ 1998년 장교동으로 원사를 이전하며 제2의 도약을 준비했다. 개원 1주년부터 시작한 ‘중구민을 위한 열린음악회’도 잊을 수 없다. 장충단공원 음악회 때는 행사 당일 오전까지 비가 와 구덩이가 파인 운동장에 모래 1차 분량을 혼자서 메웠고, 그 노력 덕분인지 3천여 관객이 운집하여 성황을 이뤘다. 국립극장 대극

장에서 열린 음악회 때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주민들이 ‘KBS 열린음악회’로 오해하여 몰려든 것이다. 초대권을 넉넉히 배부한 탓에 1,500석 규모에 3,000여 명이 몰렸고, 입장하지 못한 분들께서는 실무자로서 온갖 욕설과 물세례를 받으며 무릎 꿇고 사과해야 했다. 당시 김영남 원장님께서 “관객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 수고했어, 기죽지 마.”라며 위로해 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손기정문화체육센터의 시·구비 32억 원 규모 리모델링 공사 때도 치열했다. 3개 동 옥상에 올라가 방수 공사가 누락된 것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했고, 이 과정에서 양정고 동문화 일부 임원진과 언성을 높이며 다툼 뻘하기도 했다. 또한 보일러실 확장 문제와 실내 골프장 설치 등을 두고, 전문가라 자처하는 이들과 대립했으나 “골프장이 센터의 최대 수입원이 된다”는 주장을 수용하여 뜻을 굽히기도 했다. 이후 문화원은 4년여 동안 손기정문화체육센터를 수탁 관리하게 되었다.

• 기업 메세나와 함께한 도약

문화원의 인프라와 한화그룹의 메세나 사업을 연계하여 MOU를 체결, 2006년부터 ‘청계천 문화예술마당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기업은행이 협찬한 ‘청계천 거북선 대축제’도 큰 성과였다. 그 결과 2018년까지 약 15억 원을 유치할 수 있었고, 이는 전국 최우수 문화원 대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이 두 사업은 국내 5대 일간지와 지상파 방송은 물론, 알자지라 등 해외 통신사에도 보도되며 큰 화제를 모았다.

• 미래를 위한 제언

30년을 돌아보며 몇 가지 제언을 남긴다. 첫째, 구청은 문화원을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Arm’s length principle)”는 공공 지원 정책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둘째, 문화원 스스로도 장기적인 원사 확보 계획과 사업 수립, 그리고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원을 대표하는 축제인 ‘이순신 장군 탄신 문화제’와 ‘장충단 추모 문화제’가 최근 지속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 행사들은 문화원의 정체성을 담은 축제로서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

• 맺음말

지나고 보니 단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은 적이 없었다. 문화원을 해체하려던 사람들과 맞서 지키려고 노심초사했던 일, 규정을 마음대로 바꾸려 한다며 나를 불편하게 했던 이들도 있었지만, 모두 지나간 일이다. 혼한 근속패 하나 받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열심히 일했고 후회는 없다는 사실로 스스로를 위로한다. 지난 30여 년간 대과 없이 임무를 마치도록 도와주신 김영남 초대 원장님을 비롯한 역대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문학마당



●시마당●

갓 외 1편 | 강빛나

버즈아이우드 외 1편 | 고희별

또 하나의 어머니 외 1편 | 이경덕

시간의 껍질 외 1편 | 최연희

파도가 남긴 말 외 1편 | 최윤경

실용적인 졸업식 외 1편 | 하두자

나의 작은 방 외 1편 | 송재천

●수필마당●

임금님의 하루 | 김봉래

매화나무에 술 한 잔 부어 놓고 | 문정순

나의 커피 이야기 | 송년섭

뱀새와 황새 | 임순월

심당 예술 철학—숨의 회화 | 최영남

잃어버린 내 삶을 찾아 | 허광호

●소설마당●

그런, 아내가 있어요 | 조선희

●기행문마당●

통영 문학기행 | 김경재

가 시 외 1편

강빛나 | 시인

God!을 부르며 거룩한 식사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인간들은 당신으로부터 온 것을
식탁에 펼쳐놓고 밥알을 굴립니다
먹는 동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 때까지
손가락 사이엔 푸념처럼 상한 기분이 있습니다

찰진 한 끼를 만나기 위해
비빔 것이 참 많거든요
슬프게 싹싹했던 목례 한 접시와
따뜻하게 고난 당한 가위질 소리
김이 서린 한숨의 출처를 아세요

빈속에 찬 슬픔은 마침표가 없어서
목마름은 때때로 선을 넘는다는 거
손바닥 아래에는 천사가 있고
그걸 뒤집으면 걸인이 되듯
배가 등을 파고들 때 나는 복스럽게 이기적입니다

허기를 옆에 끼고도 친절할 수 있다면
마음의 속셈을 뻔 말씀의 자녀겠지요

그러나 벼꽃을 보고 나락 타작하는 마음으로
지문 없는 들판을 바라보며
먼저 주린 입을 오물거립니다

나의 조상도 허허로운 광야를 누비며
만나의 기적을 바랐을까요

밤과 달과 바람이 지나가는 식탁 모서리에서
왼손의 기분을 숨긴 채

불이 금세 마음을 덮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룩한 말씀 한 접시를 싹 비웁니다
갓, 그래도 갓! 허기집니다

호숫속이 횡횡해서

손발은 이미 뺨을 데까지 뺨었다
끝과 시작이 뒤섞인다

바닥을 쳐야 올라갈 수 있다는데

빌릴 데까지 빌린 빛의 목욕이
목줄을 조여 온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말을 써 놓고
누군가 나를 위해 흘릴 눈물이 있을까
이런 슬픔은 잠들 수도 없어서
마지막까지 머릿속에서 머뭇거릴 뿐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런 말도 아프니까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누비던
아홉 살, 그때로 돌아가면 괜찮을까

주머니가 있다는 게 생각나지 않아
시간을 넣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자에 이자를 문 대포폰 대포통장이
문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눈앞을 가린다

난생처음 욕설을 발사한 산탄이
주변을 뿌연게 에워싼다

며칠 굶은 것도 잊고
밤을 쪼개고 쪼개 포문을 막느라
나는 캄캄한 불안을 더듬는다

도려낸 호숫속 정적이 싫어서
반복해서 공상으로 구멍을 메웠을 뿐인데

한 번 발이 빠지면 나오기 힘든 줄도 모르고
잠잠하던 어둠이 순식간에 분탕질을 한다

잠깐 회전하는 러시아롤렛 같아서 붙잡지만
이미 강물 위에 떨어지는 꽃잎이었는지
꿈조차 구석으로 처박힐 때

어머니, 나는 내일이 무서워요*

스물아홉 여름이 이대로 끝날 것처럼 추워서
층층이 밤을 껴입고
바닥을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옆질러지는 삶

어디로 흘러내릴지

태어난 날을 되돌려
누가 나를 리셋 좀 했으면 싶은

죽도록 살고픈 날이다

※기형도 시인의 <바람의 집-겨울 판화1>에서 인용

강빛나

2017년 《미네르바》 등단, 《미네르바》 편집장, 예천내성천문예공모 대상, 시예술아카데미상 수상, 시집 『만지면 없는 당신을 가졌어요』

버즈아이우드 외 1편

고 흰 별 | 시인

단풍나무 단단한 속에 눈물이 박혀 있어요
돌돌 감긴 나이테의 길이만큼
상처로 응집된 또 하나의 주머니를 달고
나는 특별함으로 태어났어요

아픔도 아름다움이 될 수 있어요

시련으로 그려낸 나만의 그림
수많은 새들이 깃들어 집을 짓고
눈을 새기는 일
천형은 아니어요

머리를 풀었던 시간들
땅의 깊이를 재던 시절도 계절의 변화를 모른 채
나무의 전설이 되었어요

나는 다시 빛나고 있어요
탈피를 거듭할수록 이름값이 올라가요

순도 높은 보석이 되어요

상처마다 그 깊은 속엔
빛나는 무늬 하나쯤 새겨 있지 않을까요
꿈이 식지 않는다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간밤
불면의 밤을 이기지 못한 꽃의 전언이
툭
툭
떨어져 있다

카멜리아
그 향기 발산하는 동안
꽃잎의 수만큼 너도 말이 튀인 것인데
시치미를 떼고 있는 적막 사이로
긴기아난(蘭)은 입을 닫고
한껏 부풀어 오른 제라늄도 고개를 돌리고 있다

천 길 절벽으로부터
떨어진 꽃잎
동백의 모가지를 누가 비틀었을까
공포의 순간을 어찌 견디었을까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도 손사래를 치며 달아난다

상처가 깊을수록

그 향은 더 짙어진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숨을 버린 순간도 찰나였다

흘날리는 절규

목적자가 없다

향기로 흘린 심장만 애절하게 포효하는

고원별

2004년 《미네르바》 등단

또 하나의 어머니 외 1편

이경덕 | 시인

여보
당신은
태초에 예비하신 나를 찾아와
내 손 잡고 몇십 년 세월
강물처럼 함께 흘렀소

내 가슴
어둡게 형클어지면
가지런히 빗질하여
다듬어 주신 당신

무거운 짐 지고
비틀거릴 때
당신의 고운 품이 다가와
내 짐을 살짝
덜어 내렸고

나이 먹을수록

늘어만 가는 어리광
짜증으로 보채면
꽃보다 고운 웃음으로
내 앞에 피어나 있었소

십 년, 이십 년이 지나도
세월 앞에 당신은
변하지 않는 나의 꽃
나의 반려자란
이름의 꽃으로 서 있구려

여보
당신은
아직도 털 자란
남의 아들을
잘 키워내는
또 하나의 어머니라오

아름다운 일몰

나는 오늘 생각해 본다

사람의 모습은
해 뜰 때보다 해 질 때
아름다워야 하는데

해 떠 있을 때 그 모습보다도
해 질 때 모습이
아름다워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생활을
가리진 않았는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내 그림자가
다른 사람의 앞길을
어둡게 하지는 않았는지

비록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이경덕

2006년 《참조문학》(시), 2010년 《아동문학세상》(동시) 등단. 한국문인협회 및 한국문인협회 도봉지회 회원(감사), 한국동시문학회,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사)한국동요문화협회 회원. 작가시선 우수 동시 선정위원 역임. 동아꿈나무아동문학상, 도봉문학 본상, 청계천백일장 입상, 평화문학상 등 수상. 동시집 『딱따구리 집짓기』, 『쓱쓱, 쓱 뜯는 할머니』, 『다알리아꽃』, 『학이 날아온 도봉』 등.

시간의 껍질 외 1편

최연희 | 시인

해가 바뀐다고 해서
시간이 새로워지는 건 아니다

나무가 자라며
제 껍질을 벗지 않고
겹겹이, 속을 덮어 나가듯

나는 오늘도
묵은 생각 위에
새로운 숨을 얹는다

세월의 때를 한 겹 더 얹어
조용히 나이테 하나
두텁게 만들어 간다

어제의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한 겹 더 얹는다

밥그릇 온기

밥을 퍼 담은 그릇을
손바닥으로 받칠 때
스며 오는 따뜻함은

단지 열이 아니다
손끝에 머무는
하루치 체온이다

‘수고했어’ 라는 말 대신
‘다녀왔니’ 라고 묻기 전
그 온기를 먼저 건네는,

말보다 먼저 도착하는
사랑의 온도,
밥그릇이 제일 먼저 안다

최연희

《시와 수상》 등단, 한국문인협회 서산지부 지부장, 한국가톨릭문인협회, (사)한국아동청소년문학회 회원, 서산문학상, 한국아동청소년문학창작상 등 다수, 시집 『봉숭아 꽃물 들고 싶다』, 『그림자 새』, 『덜 참』, 동시집 『레미파슬라』, 『오리의 잔껍』, 『바다 비밀』 등.

파도가 남긴 말 외 1편

최윤경 | 시인

하고 싶은 말들을 포말로 덮쳐 와 슬며시 외롭다
흔적을 남겨놓고 떠나는 파도
물러서지 않고 자꾸만 밀려왔다 부서져
모래 위에 남겨진 모호한 몸짓을 쫓아가느라 하루가 저물었다
마르지 않는 눈물자국 꺾은선 그래프를 그려 놓은
바다의 안부
아무리 받아 적으려 해도 읽을 수가 없다

어둑하다는 것

유화 가득한 화실은 언제나 가슴으로 다가오는 말들이 있다
받아쓰기하듯 적어 놓은 것들을 끄집어내려니 머릿속이 하얗다
세월 탓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씩씩한
커피 한 모금 같은 인생을 살아서일까.
쓴맛에 익숙한 삶의 언저리에서 서성인다.
한 줌 바람이 스쳐 가며
버리고 버려진 것들에 아쉬움이 왜 없겠냐만
넓고 희미한 것들이 사라진 새벽을 기다리며
그 여명이 눈앞에 흑백으로 시선을 정지시킨다.
끝끝내 성치 않은 무릎을 움켜쥐며
잔재라고 하기에는 가혹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화실의 온기가 온몸을 휘돌아다닌다.

최윤경

《문학세계》 등단, 시집 『햇살을 부르다』, 『텅 비거나 혹은 가득차거나』, 『마른 꽃잎이 주는 생각』 등

실용적인 졸업식 외 1편

하두자 | 시인

학교는 아픈 줄 모르는 만성위염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죠

칠판과 책걸상 앞에서
자세나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우리는 교복을 입고 백지처럼 납작해졌죠

엄마와 선생님이 군인의 표정을 하고 있어

익숙한 명령형 문장 앞에선
슬럼프에 빠져도 장이 뒤틀려도
우린 아프지 않은 척해야 했어요

주말엔 주변인이 되어
낮선 주어를 발견하면 무조건 암기를 했지만
책 속엔 한 소녀가 서성였고 책밖엔 엄마가 군인처럼 서성였죠

어쩌다 잔디밭에서 햄버거를 먹고

한 개비 피워 올리는 담배 연기가 서정적 위로였죠

한 번 터진 웃음이나 눈물은 참기 어려웠지만
의자는 앉는 의자와 빈 의자로 나뉘져 웃프기만 했어요

오늘
졸업을 해요

축사나 교장 선생님 말씀에 인문학적 박수를 치고
새롭게 시작(始作)해 보려고요
실용적으로

별이 쓰리스타처럼 뻥뻥이는 밤이에요

엎드리다

나는 낮게 드리운 구름 아래에서 더 낮게 엎드려 있다

봄 하나가 북한산 자락을 헤집고 다녀도 당신의 몸속
봄은 턱없이 야위었고 맹목이 위험하다는 걸 아직 모른다

앰블런스가 다녀가느라 조용함이 깨진 청운 요양원

청운은 푸른 희망이었다가
별바라기 별이나 안개처럼 흩어지는 구름이었다가
서로에게 암묵적인 블랙홀이 되었다

누군가 실려 나가며
알 듯 모를 듯한 죽음 하나를 마당에 부러 놓았다

조용함이 싫었는지 가까운 데서
개가 허공을 향해 몇 번 짖다가 제 귀를 닫을 때

아무 일 아니라는 듯

하루가 무심하게 양달과 응달을 골라 앉는다

오늘의 당신은 순한 몸으로 햇살을 담뱃이다가
꽃이 피는 소릴 들으며 잠들었지만
백발의 꿈이 침대 끝에서 부스럭거린다

주름진 당신의 손은 의심도 없이 청운스럽게
다른 행성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
나는 그 꿈의 행방을 찾다가 잃드린다

앰블런스가 다시 들어왔다 나간다

하두자

1998년 《심상》 등단. 시집 『물수제비 뜨는 호수』, 『물의 집에 들다』, 『불안에게 들키다』, 『프릴 원피스와 생쥐』, 『이별 뒤에 먼 곳이 생겼다』 등

나의 작은 방 외 1편

송재천 | 시인

나의 방은 작은 세상
고요한 오후의 빛이 스며들고
책장 위에 놓인 꿈의 조각들
연필로 그린 희망의 메모들

벽에는 나의 기억이 걸려 있고
창문 너머 바람이 속삭인다
세상의 소음이 멀리 사라진 채
오직 나만의 시간에 잠긴다

바닥에 나뒹구는 나의 생각들
종이 위에 새겨진 고민과 기쁨
이 작은 공간에서 나를 찾고
고개 숙인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나의 방은 나의 안식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곳
미지로 펼쳐지는 나를 알아가는
세상과 연결된 나의 한 조각

대문 안

어느 시골의 평화롭고 그리운 마을
대문을 열면 바람이 스쳐
고요한 마당에 햇살이 내리네
한 걸음 내디디면 추억이 흐르고
그리운 얼굴들 미소 지어 오네

정원의 꽃들은 속삭이며
어릴 적 꿈을 간직하자 말해
나무 그늘 아래 그때의 나를
찾아가고픈 마음 가득하네

대문 안 그 작은 세계 속에
사랑과 이별 기쁨과 슬픔이
모두 모여 시간의 흐름 속에 남아
영원히 잊지 못할
이야기를 쓰고 가네

송재천

서울시중구의회 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임금님의 하루

김봉래 | 수필가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을 들어서면 여기저기 비슷한 건물이 사방에 즐비해 있으나 일자로 단순화시키면 근정전·사정전·강녕전·교태전의 네 건물로 좁혀집니다.

제일 앞에 있는 근정전은 임금의 즉위식이나 외국 사신을 맞는 등의식을 위한 공간입니다. 두 번째 건물인 사정전은 임금님과 신하들이 정사를 살피는 편전입니다. 세 번째 건물 강녕전은 임금의 침실이고, 그 다음 건물이 왕비의 거소인 교태전입니다.

임금님은 아침 5시경 강녕전(창덕궁은 대조전)에서 기침을 합니다. 양치하고 세소 드시면(세수를 하시면) 시립해 있던 지밀상궁은 의상을 챙깁니다. 평상복은 익선관에 용을 수놓은 곤룡포입니다. 근정전에서 행사가 있는 날은 면류관에 구장복을 대령합니다.

자릿죽[粥朝飯]으로 입가심을 한 임금님은 자경전으로 가 대비께 아침 문안을 올립니다. 여의치 못할 때는 상궁이 임금의 인사를 대신 전할 때도 있습니다.

대비전에서 나온 임금님은 사정전(창덕궁은 선정전)으로 가서 조강(朝講)이라 하는 아침 경연에 참가합니다. 학식이 높고 덕망 있는 대신들과 경전을 읽고 현안 정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한 시간 정도의 조강이 끝나면 강녕전으로 돌아와 아침 수라(水刺)

를 드십니다. 수라는 고려 때부터 쓰던 몽골에서 온 말입니다. 수라 상궁 셋이 임금님의 식사를 돕습니다. 봄, 여름에는 사기그릇, 가을, 겨울에는 놋그릇으로 된 수라상입니다. 12첩 반상이라 하여 12가지 반찬이 올라옵니다. 가뭄이나 장마 같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감선(減膳: 반찬 수를 줄임)을 했고 국상 중이면 소선(素膳: 채식)을 했습니다. 수저는 두 벌 놓입니다. 은수저는 임금님이 사용할 것이고 상아수저는 기미 상궁용입니다. 임금님이 드시기 전에 기미 상궁이 밥과 반찬을 조금씩 덜어 먼저 맛을 보는 것이 법도입니다. 수라 상궁이 그릇의 뚜껑을 열면 은수저로 임금님의 식사가 시작됩니다. 또 한 명의 상궁은 측석에서 전골을 끓이기도 했습니다. 반찬으로 쓰이는 해물이나 육류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진상품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식사를 통해서도 8도 강산의 작황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상을 물린 임금님은 사정전으로 납시어 당상관 이상이 모이는 조회를 받습니다. 매일 모인다 하여 상참이라고도 합니다. 한 달에 네 번(5. 11, 21, 25일) 조참(朝參)이 있는 날은 보여(寶輿)를 타고 근정전으로 납시어 신하들의 인사를 받습니다.

임금님의 옥좌 뒤로는 일월오봉도라는 병풍이 있습니다. 다섯 봉우리는 임금님이 다스리는 우리나라입니다. 금강산(동악), 묘향산(서악), 지리산(남악) 백두산(북악) 그리고 삼각산(중악)입니다. 해와 달은 임금님과 왕비를 뜻합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동반, 서반으로 나뉘어, 정일품, 종이품 하는 품계석 앞에 서립합니다. 이곳이 조회를 하는 뜰이라 하여 조정(朝廷)이라 했고 동반 서반으로 갈라서서 양반(兩班)이라 했습니다. 악대가 울리는 풍악에 맞추어 신하들은 임금님께 사배 절을 올립니다.

조회가 끝나고 임금님은 강녕전에 납시어 국수나 떡 같은 간식(낮

것)을 드시며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사정전에 와서 낮 경연에 참가하면서 윤대(輪對)가 오후 내내 이루어집니다. 지방에서 상경한 신하들이나 외국 사신도 이때 만납니다. 이런 행사가 끝나고 승정원에서 올린, 그날의 암호를 결재하면 병조에서는 숙직할 군사들에게 전달합니다. 해 지기 전 석강이라 하여 또 한 차례 경연이 있습니다. 세종이나 정조같이 부지런한 임금은, 하루 세 차례의 경연을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조는 사강(射講)이라 하여 대신들과 활쏘기도 했습니다. 여섯 가지 재주(六藝)라 하여 예(禮), 악(樂), 사(射), 어(御: 말타기), 서(書), 수(數)는 글 하는 사람의 필수 덕목이었습니다. 석강이 끝나면 저녁 수라를 드십니다. 임금님께 올리는 정식 수라상은 아침, 저녁 두 번입니다. 이 수라를 장만하는 곳이 소주방(燒廚房)입니다. 주로 주방 상궁들이 상주했으나 대령숙수라는 남자 요리사도 있었습니다.

수라를 마친 임금님은 대비전에 저녁 인사를 올립니다. 혼정신성(昏定晨省)이라 하여 밤에는 잠자리를 보아드리고 아침에 잘 주무셨는지 살피는 것이 효자의 도리입니다. 그 후 나머지 시간에는 낮에 다 보지 못한 상소문도 읽어야 합니다. 이런 공식 행사를 다 끝내면 저녁 11시가 됩니다. 을야지람(乙夜之覽)이라 하여 임금님은 이 시간에 개인 독서를 하여 모범을 보입니다.

임금님의 잠자리는 강녕전입니다. ‘강녕(康寧)’은 수(壽), 부(富), 유효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과 어울리는 5복의 하나입니다. 관상감에서 길일을 잡아 왕비의 처소인 교태전으로 인도할 때도 있지만, 함궁이 끝나면 다시 강녕전으로 납십니다. 사가(私家)에서 양반은 안방이 아닌 사랑방에 거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궁녀를 취할 때는 제조상궁이 궁녀의 몸을 확인하고 침전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

시각이면 사관도 다 퇴꺾혔으니 기록이 있을 수 없고 추측으로 전해지는 말입니다.

비로소 하루의 일과가 모두 끝나고 임금님은 침상에 오르십니다. 침전은 우물 정자 모양을 한 구조인데 8개 방으로 둘러싸인 한 가운데입니다. 궁전 처마에 조각된 잡상(雜像)들이 요사스런 기운을 다 막아 편안히 주무시게 합니다.

김봉래

수필가, 중국 연타이대학 한국어과 교수 역임

매화나무에 술 한 잔 부어 놓고

문정순 | 수필가

솜이불 같은 춘설도 반나절 별에 녹고, 복수초도 불뚝불뚝 꽃봉오리를 올리건만, 매화나무는 물 올릴 기색이 없다. 속이 탔다.

십오 년 전 마련한 터에 심은 매화나무는 이태가 지나서야 꽃을 피웠다. 둥근 화엽은 절세가인의 피부같이 희고 은은한 향기를 내는 백매(白梅)였다. 겨울이면 죽은 것 같던 가지도 시절이 오면 꽃으로 제 몸을 터 봄을 불렀다.

연을 틀 비가 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뜰로 나가다 흠칫했다. 비에 불어 꺾질이 벗겨진 나무는 줄기마다 빨긴 속살을 내보이고 있었다. 마치 제 속의 아픔을 알아달라는 것 같았다. 손을 대자 꽃이 틀 잔가지들이 힘없이 부러졌다. 떨어진 나무껍질 옆으로 가느다란 결가지 하나만 푸르스름했다. 연유를 살피러 둘러보니 나무 밑을 두더지가 헤집은 흔적이 보였다. 들뜬 땅은 바람을 들어 뿌리를 말려 버린 것이다.

살던 곳을 떠나 터 몸살을 앓던 나무처럼, 나 역시 낯선 곳의 적응이란 쉽지 않았다. 매화라도 심어 많은 문사(文士)가 그랬던 것처럼 매화를 사랑하고 벗으로 여겨 마음을 나누는 군자의 기상을 흉내라도 내고 싶었다. 홀연히 생을 놓아 버린 매화나무에 술 한 잔 부어 주려 청주를 꺼내다 문득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생각이 났다. 벗겨진 나무의 핏빛 속살이 아버지의 속내 같았다. 아버지의 삶은 꽃으로 치면 풍

상을 건넨 매화 같았다.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장남인 형이 징용 영장을 받았다. 장자가 잡혀가 죽게 생겼으니 부모님과 형은 식음을 전폐했다. 이를 보다 못한 아버지는 형 대신 당신이 가겠노라 했다. 잠시 후 가보니 세 분이 단란하게 밥상을 받고 계셨다. 웬지 모를 배신감에 산으로 뛰어가는 죽어도 되는 자식이구나 하는 생각에 산이 무너지게 통곡하였다 했다.

훗카이도 탄광으로 끌려간 아버지는, 일제의 패망으로 이태 만에 광복된 조국으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처자식을 데리고 상경했다. 타관 객지에서 일가를 이룬 아버지는, 문중 대소사를 살피며 아들 이름이 올려진 족보를 신줏단지 모시듯 여겼다. 타향살이 외로움을 이웃과 동맹하듯 문턱을 넘는 이를 가림없이 대접했다. 언성 높여 다투는 일도 없고, 어려운 이의 사정을 외면하지 않았다. 겨울이면 찾아오는 희명이 아저씨 어깨에 쌀자루를 올려주고, 언덕을 넘어 갈 때까지 손을 흔들던 아버지. 궁핍한 시절 녹록지 않은 살림에도 그렇게 나누셨다.

아버지는 당신이 세운 원칙에 따라 사셨다. 아내에게 살림을 맡겼던 것처럼 만아들이 결혼하자 살림의 전권을 며느리에게 물리셨다. 신뢰만이 가정의 화목과 집안을 세울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한번 넘긴 살림에는 어떤 간섭도 없었다. 그런 아버지 앞에 아들은 처자식을 남겨놓고 삼십대 청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자식을 앞세우고 울부짖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입술에는 붉은 피가 흘렀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아버지는, 평생 세운 원칙을 당신에게 국한시킬 뿐 여타의 주장은 멈췄다. “나는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볼 거다.”라는 『주역』의 운명론으로 당신 위에 얹힌 무게를 감내했다.

맑은 술을 좋아하셔서 명절이나 좋은 날 손님이 들고 온 청주는, 입술을 축이듯 반주로만 드셨다. 아버지가 “청주 좀 데워라!”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장지문을 올리면 나는 잭싸게 술병을 챙겨 냈다. 어머니께 “거, ‘사케’ 좀 데우시게…” 청을 하는 날의 식사 시간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끌려간 홋카이도 탄광은 하루가 멀게 사람이 죽어 나갔다. 그런 죽음이 서린 막장에서 시간이 함몰된 바닥을 굽으며 유일한 희망은, 작업 종료를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를 듣는 것이었다고 했다. 호루라기는 목숨줄이었다. 막장을 벗어나 받은 끼니는 소금만 넣어 주무른 주먹밥 한 덩이가 다였다. 어느 날 주먹밥과 한 잔의 술, ‘사케’가 배급됐다. 마신 술기운으로 두고 온 어린 딸이 어른거리 하늘에 대고 “아버지, 꼭 살아 돌아간다!” 하고 외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고 했다. 당신이 살아 돌아갈 이유가 어찌 어린 딸뿐이었을까. 그렇게 아버지가 청주를 사케로 부른 날은, 당신의 괴움을 당겨 잡고 싶은 날이었으리라.

따끈하게 데운 청주를 들고 뜰로 나갔다. 당나라 황벽(黃蘗) 선사의 시 한 수를 곱하듯 읊으며 수를 다한 매화나무에 잔을 부었다.

뺨골 쭈시는 한기를 꺾지 않았다면(不是一番寒徹骨)

코끝 찌르는 향기를 매화가 어찌 얻었으리(爭得梅花撲鼻香)

마지막 잔을 부어 놓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아버지, 사케 데워 왔어요!”

문정순

2020년 《창작수필》(수필), 2023년 《문학시대》(시) 등단, 창작수필작품상 수상

나의 커피 이야기

송년 섭 | 수필가

다방 구석진 곳에 검은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까까머리 학생이 책가방과 모자를 옆에 미루어 둔 채 두리번거리며 커피를 마시고 있다. 잔에 커피 가루를 한 스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연유[加糖煉乳]로 단맛을 맞춘다.

촌수가 먼 일가 누나가 다방에 근무하면서 나는 본의 아니게 다방 출입을 하였는데, 누나의 심부름꾼이 되었기 때문이다. 심부름으로 다방에 들르면 누나는 당연히 커피를 달게 타주고, 돌아갈 때는 버스비의 몇 배 용돈을 주니 가난한 시골 유학생이었던 나는 누나의 심부름을 기다리게 되었다. 누나는 가끔 홍차도 타 주었는데, 당시 홍차에는 위스키 몇 방울을 넣어 '위티' 라고 불렀다. 누나의 동료들은 내 홍차잔에 위스키를 넣어 장난을 하였다. 친구들보다 일찍 다방 출입을 하였고, 위스키를 마신 셈이다. 커피가 무엇인지, 왜 마시는지, 입맛에 맞지도 않는 검은 물과 친해지기는 한참 후의 일이다. 지금도 을지로 6가 '야자수 다방' 서울대병원 구내다방 등 누나의 근무처였던 다방이 눈에 선하다. 누나는 30여 년 전 자녀를 따라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나이가 80세이니,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가 궁금하다.

담배 연기 자욱한 다방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대화를 나누던 실업자, 외국 잡지를 끼고 거들먹거리던 가짜 대학

생, 그들을 비집고 양담배며 소품을 팔던 잡상인, 50년대, 60년대의 다방 풍경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지워지지 않는다. 가난했던 시절 연인들은 데이트 장소가 다방이었고, 커피잔을 통해 정이 오갔고 사랑이 커갔으려니. 누구를 만나야 한다면 으레 다방이었다. 다방은 다양한 사람들의 쉼터다. 그곳에는 거친 삶을 사는 ‘흙수저’ 들도 거리낌 없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어 좋았다. 빈부귀천이 커피에 녹아 커피가 중간 다리가 되었고, 지금도 커피는 다방의 주메뉴이다.

1961년 5월 29일 서울 시내 다방 1,150곳에서 커피가 자취를 감추었다. 군사혁명 당국이 커피와 양담배를 외화 낭비와 사치의 주범으로 몰아 판매 금지 조치를 단행했던 것. 그러나 ‘오갈 데 없는 실업자들이 다방에 죽치고 앉아 커피 한 잔을 놓고 잡담을 하고, 천하를 뒤흔들겠다는 공리공론을 늘어놓는 비현실적인 풍조’에 칼을 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1960년의 다방은 전국에 2,800곳이 있었는데, 오늘의 다방(커피 전문점)은 전국에 5만 곳 가깝다고 하니 커피와 우리 생활의 밀접도를 알 만하다. 목 좋은 곳은 약국이나 전자제품 대리점이었는데, 이제는 커피 전문점이 자리하고, 풍광 좋은 시골길에는 무슨 무슨 카페가 자리를 틀었다. 당시 서울 시민들이 한 해 25잔 꼴로 마셨는데, 작년 1인당 커피 소비는 484잔으로 폭증했다. 이것도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이 식당에서 식사 후 서비스로 주는 공짜 커피, 사무실에서 접대용으로 비치한 커피, 가정에서 보유하며 즐기는 커피까지 합치면 보통 사람들도 1년에 1,000잔은 마실 것 같다.

세월 따라 커피 문화도 확 바뀌었다.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등등 유명 커피가 수십 종이요, 용기도 커피잔 세트는 옛말이고, 머그잔에서 1회용 종이컵에, 뚜껑을 덮고 빨대를 꽂는 휴대용까지 분화되고 있

으니 너무 달라졌다.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커피, 프림, 설탕을 섞어 한 봉지에 담은 싸구려에서 전문점 커피는 보통 5천 원이나 하고, 호텔 커피점은 1만 원을 넘긴다.

커피의 맛에는 그윽함이 있다.

커피의 향에는 못다 이룬 젊은 그들, 사랑의 아련함이 배어 있다.

커피 문화는 시골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마을회관이나 동네 노인정에는 종이컵과 봉지 커피가 항상 준비되어 누구나 손쉽게 커피를 마신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커피 문화가 산골마을까지 점령해 버렸다. 그늘 밑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땀을 식히던 농부들도 이제는 대신 커피를 마신다.

40년 전 담배를 끊으려는데 쉽지 않았다. 아침에 눈뜨자마자 담배를 피웠는데, 궁리궁리하다가 커피로 대신한 것이다. 담배 생각이 나면 커피를 마셨는데, 그때 습관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늘도 식전에 커피를 마신다. 머그잔에 블랙커피를 한 잔 가득 타서 사랑채 바깥 마루에 아내와 마주 앉아 동네 풍경을 감상하며, 아내 한 모금 나 한 모금 번갈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나의 커피 문화이다.

술꾼이 안주와 술의 종류를 가리지 않듯이 나도 커피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마셨는데, 몇 해 전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은 후 의사의 권유로 프림이 들어간 커피는 멀리 하였다. 얼마 전 친구로부터 커피가 심장병에 안 좋다는 유명 교수의 이야기를 카톡으로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 교수는 예전에 잘 알고 지내던 분이라 직접 물어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어느 의사는 커피를 하루에 몇 잔 마시는 건 몸에 좋다고 하고, 어느 분은 건강에 나쁘다고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나. 담배 끊고 술까지 즐겼는데, 커피까지 못 마시면 무슨 기호식품이 내게 남을까.

친구들과 어울려 장터 후미진 다방에 들른다. 중국에서 온 교포 아
줌마들의 눈웃음을 받으며 커피를 시킨다. “나, 커피. 블랙으로 양 좀
넉넉히!”

송년섭

저서 『목화솜 모정』, 『공경재의 빛소리』

백새와 황새

임순월 | 수필가

썩썩 싹싹, 쌀 씻는 소리가 힘차다. 잠결인데도 어머니의 매운 손맛이 느껴질 정도다.

어릴 적 어머니는 물 묻은 손으로 혹은 불이 붙은 부지깥이로 우리 형제들을 때렸다. 언제나 예고가 없었기에 잠을 자던 우리는 느닷없는 날벼락을 맞아야 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어머니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생성되는 걸까? 새벽 5시, 딸랑거리는 압력솔이 기어이 잠을 깨우고 만다. 제발 소리 좀 안 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해도 소용없다.

날이 밝으면 말 못하는 짐승들도 일어나는 법이라며 늦잠을 허용하지 않는다. 마지못해 거실로 나와 보니 어머니는 반진고리를 앞에 놓고 바늘구멍에 실을 꿰고 있다. 그 모습이 성스럽다거나 아름답기는 커녕 오히려 섬뜩하다.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는 100세 노인의 극성스러움 때문이다. 어머니는 내 스타킹은 말할 것도 없고, 사위의 팬티까지도 허연 무명실로 기워 놓는다. 팬티의 밑단을 동그랗게 오려낸 다음 일반 천을 대고 손 박음질을 하는 솜씨는 가히 예술이다. 남편은 골프 운동이 있는 날에도 그런 팬티를 입고 나간다. 오죽하면 남편에게 불감증 1등급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주었을까마는 퀘팬 스타킹을 신고 다니는 나 역시

다를 바가 없다.

어머니는 오늘도 본격적인 바느질 솜씨를 발휘할 준비를 마쳤다. 꿰맬 물건은 화장실의 ‘미끄럼 방지 매트’이다. 끊어진 연결 부위를 단단하게 흘쳐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엄마, 새로 사면 되니까 그만 뒤요.”

“큰 소리냐? 꿰매기만 하든 얼마든지 쓸 수 있는디.”

“그래서 우리 집 욕실을 흥부네 욕실로 만들 작정이세요?”

“딱둥이네 껌도 꼬매봤더니 평생 쓰겠드라.”

“엄마, 여긴 강남이야, 강남 사람들은 화장실 매트를 꿰매서 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디야?”

“갈치도 큰 거만 먹고 옷도 새 것만 입는다구요.”

어머니의 고집을 꺾고 싶었을 뿐인데 대답이 빗나가고 말았다.

“뱀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다리 부러지는 것도 모르냐?”

“누가 뱀새인대요?”

“니가 뱀새지 그럼 못이냐?”

“저는 뱀새가 아니라 황새예요. 지금까지 죽을똥 살똥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뱀새라니요? 두고 보세요. 곧 죽어도 황새로 살테니까.”

“곧 죽는다 죽는다 해도 안 죽더라. 나를 보라.”

영리한 어머니는 엉뚱한 대답으로 내 입을 막아 버린다.

내가 사는 곳은 강남에서도 끄트머리 쪽이다.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어머니는 우리 집을 하우스로 취급한다. 옛날에 당신이 나물 캐러 다니던 논바닥이라며 지금도 그 시절의 가치로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좋다. 뭐라고 하시든. 그러나 비교는 말아야지. 방학동에 사는 사촌

들의 빌라를 설명할 때는 그 과장법이 타워펠리스급이다. 반면에 내가 살았던 집이나 지금의 집은 모두 월세라고 소문을 낸다. 그 바람에 친척들은 아직도 내가 셋방살이를 못 벗어난 줄로 안다. 그건 명예훼손이라고 항의를 하면 대출받은 집은 그 이자가 바로 월세이므로 틀린 말이 아니라고 우기신다. 억지도 유분수지 고약한 심보다. 아무리 그리한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내 집이다.

그동안 우리 가족은 열심히 살았다. 화장실과 주방이 없는 지하방에서도 살았고 IMF 때는 포장마차를 끌고 단속을 피해 다니기도 했다. 그래도 아이들은 예쁘게 잘 자라주었고 집도 장만했다. 내 집으로 이사하던 첫날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주방에서 거실로 옮겨 다니다보니 날이 새 버렸다. 그때의 감격과 흥분을 어찌 잊으랴? 그 연장선에서 우리 부부는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다녔다. 서로에 대한 연민과 결핍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지켜보는 어머니는 송충이는 술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며 과거를 소환하곤 했다. 그럴수록 나는 반항을 하듯 소비의 속도를 내며 과욕을 부렸다. 하지만 그 욕망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다.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서 자신의 팔까지 뜯어 먹는 에릭식톤처럼 끝이 없었다.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불꽃이 튀었다. 과감하게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시작했고 물질보다 마음의 살을 찌우고자 애를 썼다. 60을 넘긴 나이이지만 활자와 친해지는 재미가 어느새 나를 젊은 시절로 데려가는 마술을 부렸다.

그런데 어머니는 사위의 표정과 분위기에서 뭘 직감했는지 또다시 뱀새를 운운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서 빨리 망하라고 기도하시냐고 반문해 보지만 어머니의 측은 무서울 정도로 예리하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니 집은 지붕만 남고 기둥까지 물에 잠겨 있다. 이 상황이 될 때까지 눈치를 못 챈 내게도 책임이 있다. 자꾸만 우편물이 배달되

고 사람이 찾아오고, 집은 점점 더 침몰 중인데 그 와중에 아들 내외가 손녀와 손자를 데리고 왔다. 나는 이제 갓 태어난 손자의 손도 만져보고 향긋한 냄새도 맡아 보시라고 어머니 품에 안겨 드렸다. 기저귀를 벗기고 튼실한 고추도 보여 주었다. 끓는 라면도 손으로 저으셨던 어머니의 굳은 손에 부드러운 감각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다. 어머니의 골 깊은 주름에 꽃이 피고 달그락거리는 틀니가 소리를 내어 웃는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가슴이 뜨거워진다. 어머니는 된밥을 씻어서 먹을지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아무리 궁핍해도 돈을 빌리지 않으셨다.

뱀새라고? 지금 마주한 현실이 낯설기만 하다. 하얀 눈 위에 리어커 바퀴 자국을 남기던 그 밤을, 잔액이 부족해 버스에서 내렸던 때를, 열심히 살았던 그 소중한 시간들을 잠깐 잊어버린 결과 값인 것 같다.

그렇다. 고고한 자태의 황새가 된다는 건 어설픈 돈 몇 푼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 뱀새와 황새란 비단 다리의 보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일은 가장 뱀새다운 다리로, 가장 뱀새다운 날개로 비상하는 일이다. 가장 낮게 날수록 꽃과 풀이 어우러진 세상이 더 잘 보일 것이다.

임순월

2026년 《무등일보》 신춘문에 등단, 저서 『부엌에서 인도까지』

심당 예술 철학 - 숨의 회화

-함께 가는 길

최영남 | 수필가

1. 서론—예술은 사람의 마음에 숨길을 내는 일이다

세상은 종종 숨 막히는 곳이 된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간다. 예술은 그 벽에 작게 뚫린 구멍, 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어야 한다.

숨은 단순한 호흡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가 존재로서 살아 있기 위한 통로이며, 삶과 세계가 서로를 느끼는 첫 관계다.

2. 존재론—숨은 존재의 본질이다

존재는 숨으로 증명된다. 숨이 막히면 존재는 닫히고, 숨이 트이면 존재는 세계와 다시 이어진다.

숨은 생명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운동이다. 그것은 인간이 아닌 모든 생명과 연결된 자연의 리듬이기도 하다.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순간, 자연은 이미 숨을 쉬고 있다.

나는 자연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고 믿는다. 자연은 스스로 완전한 예술이며, 모든 창조의 근원이다. 예술은 그 자연의 경이 앞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그 숨의 일부가 되는 일이다.

3. 미학—숨의 회화

그림은 작가의 숨이 머물다 간 흔적이다. 수많은 점이 찍힌다. 선이 흐르고, 여백은 숨을 쉰다. 붓끝은 들숨과 날숨의 리듬을 따라 움직인다. 그림은 단지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명의 호흡을 드러내는 일이다.

숨의 회화는 형상을 닮는 그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숨이 통하는 그림이다. 그 안에서 작가와 자연, 자연과 관람자가 한 호흡으로 이어진다.

4. 구원론—예술은 숨구멍을 내는 행위이다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숨이 막히는 경험을 한다. 예술은 그 막힌 곳에 작은 숨구멍을 낸다. 절망 속의 존재를 다시 숨 쉬게 하고, 그에게 숨길을 내어 준다. 그 안으로 사랑이 스며들고, 닫힌 마음이 열린다.

예술은 그렇게 인간에게 생명의 숨을 돌려준다. 그 한 줄기 바람이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구원의 숨이다.

5. 윤리—사랑의 숨길, 함께의 예술

사랑은 예술의 근본 정신이다. 사랑은 생명을 살리고, 올바르게 길러내며, 서로를 존재하게 만든다.

숨의 예술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는다. 함께 숨 쉬는 예술, 서로의 마음에 바람을 통하게 하는 예술이다.

예술은 그에게 숨길을 내어 주는 행위다. 닫힌 마음이 열리고, 그 안으로 사랑이 스며든다. 그 사랑은 우리 모두를 함께하게 한다.

6. 정신철학—지성의 숨, 자유의 예술

자유는 숨이 트일 때 얻어지는 상태이며, 존재가 존재답게 설 수 있는 자리다. 예술은 자유를 지키는 행위이고, 그 자유는 지성에 의해 깊어진다.

지성은 숨의 자각이다. 왜 이 붓질을 하는가, 이 여백은 무엇인가를 묻는 정신이다. 감정만으로는 호흡이 흐트러진다. 지성은 그 호흡에 질서와 깊이를 부여한다.

지성은 예술을 사유로 이끌고, 사유는 예술을 자유로 이끈다.

7. 사회와 교육—함께 숨 쉬는 세상

예술은 사회 속에서 숨을 쉰다. 그림은 작가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바람을 통하게 하는 공공의 호흡망이다.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숨을 가진 존재다. 그들의 웃음과 시선, 손끝의 온기 속에서 예술은 다시 살아난다.

교육은 정답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숨 쉬는 법을 되찾게 하는 일이다. 예술은 그렇게 세상에 사랑과 숨을 되돌려 준다.

8. 인간학—인간은 함께 숨 쉬는 존재다

인간은 홀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랑과 함께, 관계와 공존 속에서만 온전한 생명으로 존재한다.

함께는 인간의 본질이며, 자유와 지성, 사랑의 완성은 결국 ‘함께 있음’에 있다. 예술은 그 ‘함께의 숨’을 일깨운다.

9. 결론—평화, 다시 숨이 되는 자리

숨은 존재를 일으키고, 사랑은 함께 가게 만들며, 자유는 지성을 깊게 하고, 지성은 평화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평화는 다시 숨이 된다. 예술의 끝은 평화이며, 평화는 생명의 순환이자 예술의 완성이다.

자연은 그 순환의 모범이고, 예술은 그 순환을 깨닫게 하는 창이다. 예술은 자연의 숨결을 닮아야 하며, 자연의 질서 안에서 다시 인간의 숨을 새롭게 한다.

그 길 위에서 그림은 저절로 그려진다. 자유와 평화, 그리고 사랑. 우리 모두 함께 가는 숨이 트이는 생명의 그 길에서.

최영남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전라남도미술대전 특선, 인사동 문화상 등 수상, 남농미술대전, 소치미술대전, 충남미술대전, 나혜석미술대전 등 심사위원 역임, 현재 한국미술협회 이사, 지음 회원

이어버린 내 삶을 찾아

허광호 | 수필가

1990년대 초반 한동안 오지 여행에 빠져 있었다. 틈만 나면 정선 산골짜기나 홍천의 삼둔(살둔, 월둔, 달둔마을) 인제의 사가리(아침가리, 연가리, 적가리, 명지가리) 등 오지를 찾아다녔다. 그때 아직 포장 안 된 구룡령 밑 미천골 계곡에 있는 선림원터 이야기를 유흥준 답사기에서 보았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있는 그의 책은 우리나라 여행 수준을 한 차원 높인 명저이다. 이어령, 김용옥과 더불어 우리 문화계 좋은 영향을 준 3대 구라로 알려진 그의 선림원터 답사기를 보면 미천골 계곡에서 노니는 폐사지 답사는 가히 신선놀음이다. 그에 따르면 폐사지야말로 최고수만 다니는 답사 여행의 꽃이라 했다.

그 꼬임에 자발적으로 넘어가 선림원터를 처음 다녀온 뒤 가까운 여주 원주의 남한강을 따라 남겨진 폐사지를 다녔다. 고려, 조선 시대 세곡선이 드나들었던 남한강변에는 거돈사, 법천사, 홍법사, 청룡사 등 국보나 보물이 즐비한 폐사지가 많다. 대부분 고려 시대 거찰로 유명 승려들이 주석하던 곳인데 조선 중기 이후에 점점 쇠락해져 없어진 곳이다. 유흥준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남한강 편에서 폐사지만 별도로 묶어 제시할 정도였다. 모든 폐사지가 나름대로 소회를 느낄 수 있겠으나 그중 내가 제일 자주 찾은 곳은 서울에서 가까운 여주 고달사지이다.

지난 30년간 다섯 차례 들렀으니 평생 네 번 들린 불국사보다 더 자주 찾은 셈이다. 두 번은 아내와 함께, 두 번은 나 홀로, 한 번은 첫 직장에서 해임 통보를 받았을 때, 막 대학입시를 끝낸 둘째 아들과 함께 갔었다. 홀로 갔었을 때가 가장 좋았고, 아들과 함께 간 때도 기억이 뚜렷하다. 지금도 종종 아들이 그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아이도 겨울 폐사지 허허로운 풍경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듯하다. 아니면 오십에 접어든 아버지가 회사를 강제로 나온 뒤, 눈 쌓인 폐사지를 걷는 것을 보고 인생의 무상함이나 삶의 무정함을 느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갓 스물 된 아들에겐 오래 기억될 순간이었을 게다.

폐사지 답사는 의미 있는 동반자와 함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홀로 가는 것이 좋다. 내 아내의 경우는 서로 성향이 달라서 금방 지루해하고 빨리 가기를 눈빛으로 재촉하기 때문에 좋은 동반자는 아니다. 가능한 한 혼자, 늦가을이나 눈 내린 겨울, 평일 늦은 오후 해거름에 가는 것이 최고다. 아무도 없거나 한두 명 정도 답사객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고달사지는 여주와 양평 사이 한적한 곳에 있어 처음에는 영동고속도로와 지방도로를 따라 지도를 보며 겨우 찾았던 기억이 난다. 그 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지방도를 이용해 다녔다. 이번에 가 보니 광주원주고속도로 동여주 나들목 바로 옆이라 교통이 더욱 편리해졌다. 폐사지의 적막함이 없어질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 바로 옆이 골프장이라 그런 우려를 더하였는데 다행히 찾는 사람이 아직은 많지 않은가 보다.

고달사 터는 북쪽과 서쪽은 산으로 막혀 있고 동쪽과 남쪽은 트여 있는 소위 명당이다. 한창 전원생활을 꿈꾸며 땅을 수소문하고 다니던 때, 양평과 여주 일대를 많이 돌아다녔다. 오만분의 일 지형도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곳이 이곳이었는데 절터라 아쉬워했던 기억이 난

다. 풍수에서 절터는 기가 너무 세서 사람이 머물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친다.

목은 이색과 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유항 한수(1333~1384)가 고달사에 들러 지은 시에도 “사방의 산들이 절집을 에워싸고, 비석 하나 푸른 하늘을 의지했네”라고 이 절이 앉은 자리를 기렸다. 이번엔 가 보니 몇 차례 발굴 조사 후 만이천 평이 넘는 곳을 사적지 지정하여 낮은 펜스로 보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서쪽 산 아래는 개인 소유지였는지 작은 사찰이 들어와 있었다. 그 사찰에서 들어 놓은 독경 소리 때문에 고즈넉한 분위기가 전보다 못했다.

고달사지에는 국보 제4호로 지정된 승탑 한 점과 원종대사 탑비 등 보물 세 점이 있다. 탑비의 귀수 부분이나 승탑 석조조각의 뛰어난 예술성을 감상하기 위해 찾는 이들도 있다. 나는 그런 예술 작품보다는 폐사지에서 풍기는 분위기에 매료되어 이곳을 자주 찾는다. 절터 한가운데 서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풍경이나 목탁 소리를 상상한다. 비어 있는 땅을 가득 채웠을 절집 당우가 눈에 보이는 듯하고 때로는 어느 스님의 청아한 독경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고달사가 영화로운 시기에 들렸던 유항 한수도 이 절에 머물며 “지나온 삼십 년 꿈만 같으니, 뜻 맞았던 소년들 태반은 죽었네.”라고 인생의 덧없음을 읊었다.

신라 말부터 천년을 내려온 거찰이 삼·사백 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석물만 몇 개 행헝그렁 남겨진 빈 절터에서 영고성쇠의 세월을 바라본다. 그러노라면 겨우 백 년도 안 될 내 삶도 같이 바라볼 수 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은퇴 후에는 겨우 두 번 이곳을 찾았다. 별것도 아닌 공부 몇 가지 한다고 건동건동 세월을 보냈다. 정말 귀중한 남은 세월인데….

이제 법천사지나 거둔사지도 다시 들러야겠다. 다가오는 겨울, 눈
많이 내린 추운 저물녘엔 고달사지도 다시 찾아야겠다. 이번엔 잃어
버린 삶을 찾을 수 있으려나?

허광호

2019년 《한국수필》 등단, LG 임원, LIG CEO 역임, 철학박사, 저서 『7인의 수다, 맛깔나는
술 이야기』 (공저)

그런, 아내가 있어요

조선희 | 소설가

바비씨가 순찰차에 발견된 건 일주일 전이었다. 아파트 단지에서 버스 한 정류장 떨어진 곳이었다. 그녀에게 왜 그랬냐고 묻지 않았다. 다만 그 뒤로 불을 켜 채 소파에서 잠이 드는 버릇이 생겼다. 그녀의 코 고는 소리에 잠이 깬다. 시계는 막 네 시를 넘었고 한번 깬 잠은 쉽게 들지 않았다. 커튼 사이로 가느다란 빛줄기가 들어왔다.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여니 함박눈이 내리고 있었다. 손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듬성듬성 내려앉았다. 눈 위에 알몸으로 선 것 같은 싸늘함을 느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교회 앞에 모여 있는 게 보였다. 그들은 우산을 나눠 쓰고 노래를 불렀다. 희미한 노랫소리가 하나의 눈덩이처럼 점점 커졌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어둠에 묻힌 밤…’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밤이기도 했다. 불이 없는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사람들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바비씨는 어떤 날은 종일 잠만 잤다. 자고 일어나면 밥을 찾았다. 여기저기 음식을 흘렸고 내가 한 술이라도 뜨면 어느새 다가와 내 밥그릇을 탐냈다. 오늘도 그녀는 뽀뽀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아침밥을 기다렸다. 카레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우자 굶주린 야수처럼 밥그릇을 가로챘다. 그리고 말했다.

“크리스마스인데 어디 안 갈 거야?”

그녀가 먹으면서 쿵쿵 소리를 냈다.

나는 박 피디가 기획한 커피머신 판매 영상을 보며 물을 마셨다.

“응? 핸드폰만 볼 거야?”

바비씨의 입에서 튀어나온 음식물이 내 물잔으로 떨어졌다. 나는 싱크대에 물을 버리고 냉장고에서 작은 생수병을 꺼냈다. 그녀가 음식을 삼키기도 전에 밥순가락을 떴다. 급체해서 응급실까지 갔던 일을 떠올리며 그녀의 손목을 꼭 잡았다.

“천천히.”

그녀가 눈을 내리깔고 훌쩍거렸다.

“크리스마스에 계획이 없다니 말이 돼?”

“또 어딜 가려구요.”

나는 커피머신 제품 아래 달린 리뷰를 보며 건성으로 말했다.

“돈가스 먹고 싶어.”

그녀가 카레를 먹다 말고 욕실로 들어갔다. 연말이라 어딜 가도 사람이 붐빈다는 말이었는데 먹히지 않았다. 너무 많은 걸 기대한 탓이었다. 제지할 틈도 없이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웬지 그녀의 술수에 말려든 것 같았다. 어쩌면 아버지의 계획에 내가 걸려든 걸 수도 있다. 오랜만에 아들 집에 온 아버지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새벽에 짐을 챙겨 혼자 떠났다. 여자만 남겨 놓고. 그게 벌써 일 년 전이다.

아버지는 그녀가 아픈 후로 식사량을 조절해야 할 만큼 식탐이 생겼다고 했다. 가끔 사람을 못 알아봐 뜬금없는 말을 하는 것 말고는 함께 지내기 괜찮을 거라고. 노트에 휘갈겨 쓴 아버지의 글씨체는 예전보다 기운이 빠져 있었지만 거제도 공사가 끝나면 돌아오겠다는 말처럼 미안한 기색 없이 제멋대로 하는 건 여전했다.

바비씨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늙은 남편이 안중에 없어 보였다. 열네 살 아래의 아들을 어려워했던 기억도 자신이 누워 있는 침대가 그의 몸 냄새와 땀 냄새로 얼룩져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 한두 개의 목욕용품과 무채색의 수건만 있던 욕실에 빨간색 때수건과 발뒤꿈치를 미는 각질 제거 돌이 걸렸고 새 목욕용품이 담긴 노란색 플라스틱 바구니는 구석에 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래도 그건 참을 만했다. 한여름에 슬립 원피스만 입고 거실을 돌아다니고 노크도 없이 화장실 문을 벌컥 열 때면 내가 나가든 그녀가 나가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를 걸 때면 휘몰아치던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녀가 일찍 일어나 국과 밥이 있는 그럴 듯한 아침 상을 차렸다.

“아침은 안 먹어요. 차리지 마요.”

그런 호의가 어색해 이내 거절하곤 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해진 규칙을 따르듯 출근할 때 점심 도시락을 내 손에 들려줬고 베란다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그건 아버지도 엄마도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종류의 호의였다. 나는 두 번 다시 뒤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진짜 엄마처럼 구는 게 싫었고,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를 떠올리면 역겨웠다.

먹다 남은 카레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 문자가 들어왔다.

—메리 크리스마스!

신영 홈쇼핑의 박세희 피디가 문자와 함께 전자 카드를 보내왔다. 옷을 때 코를 찡긋하는 버릇이 매력적인 걸 아는지 비슷한 이모티콘도 덧붙였다. 볼펜 하나에도 캐릭터 인형을 달고 다니는 그녀의 취향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박 피디처럼 귀여운 카….,라고 썼다가 지우고 짤막한 답문을 보냈다.

—박 피디님도요.

새벽에 내리던 눈은 그쳤다. 제설 차량이 지나간 도로는 질퍽했고 해가 들지 않은 곳엔 군데군데 눈이 쌓여 있었다. 인도에는 지나간 사람들의 발자국들이 작은 길을 만들었다. 바비씨는 내 팔을 붙들고 눈이 녹은 길을 골라 조심스럽게 걸었다. 을지로입구역에 내려 명동 성당 이정표를 찾았다. 그녀가 상점 간판을 눈으로 짚어 가며 앞서 걸었다. 그녀의 머리 위로 빨간색 베레모에 달린 검은색 깃털이 나풀거렸다. 아침에 얇은 원피스를 입는다는 걸 가까스로 말렸더니 베레모를 꺼내 들고 나갈 채비를 했다. 내가 설마, 하며 물었다.

“그거 쓸 거예요?”

“자기가 크리스마스 때 사준 건데 당연히 써야지.”

결국 아버지가 말한 대로 뜬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바비씨는 베레모를 애뜻하게 손으로 쓸었고 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서 따라갔다. 명동 한복판을 걸을 때마다 베레모에 꽂힌 검은색 깃털이 그녀의 머리 위에서 하늘거렸다. 무성 영화의 한 장면 같았고 나는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와 사람들을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었다.

명동 돈가스에는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앞선 군인들이 메뉴판을 보며 등심과 안심 사이에서 고민하는 게 보였다. 첫 휴가 나왔던 때가 떠올랐다. 동서울터미널에서 돈가스를 먹고 가자는 선임의 말에 그를 따라나섰다. 다른 동기들은 각자 집으로 흩어졌고 나는 여자 친구와 헤어진 선임의 낯술 상대가 되기로 했다. 혼자서 배달 음식을 끼니로 때우는 것도, 음식 냄새만 공허하게 맴도는 텅 빈 집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나올 것 같았다. 담배를 태우고 들어온 선임한테 쾌쾌한 입냄새가 났고 그 냄새는 아버지와 마주 앉은 기분을 들

게 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는 금융 위기 때 경영난으로 파산했다. 아버지는 한동안 술에 의지해 일상이 무너졌고 엄마는 아버지와 말싸움 끝에 막노동이라도 하라고 소리쳤다. 나는 엄마가 해놓고 간 새벽밥을 먹으며 사고 소식을 들었다. 예민한 중학생이었고 아버지가 집을 나간 것도 모자라 청소 노동을 시작한 엄마가 새벽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아버지와 나를 묶어 두었던 건 핏줄이 아니라 엄마였다는 걸.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나와 아버지는 끈 떨어진 연처럼 서로의 갈 길을 찾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일거리를 찾아 지방으로 내려갔다. 나의 생물학적 생부였고 미성년이었던 자녀의 법적 보호자였지만, 그의 의무와 책임은 엄마가 죽은 후 함께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졌다. 어쩌면 그도 엄마를 잃은 불쌍한 늙은 소년이라고 생각하면 그저 처량한 인간이었다. 덕분에 홀로 입소식을 치른 적적한 기분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내가 자대 배치를 받고 난 뒤 아버지는 한참 어려 보이는 여자와 함께 나타났다.

“이름이 대영이라고요?”

아버지가 만두를 한 입 베어 물며 내 이름을 알려 주자 여자는 놀랐다. 여자는 탕수육 접시를 내 앞으로 밀며 멋쩍게 웃었다. 그녀의 전남편 이름도 대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한참 후에 일이었다.

“많이 먹어요. 뭐 좀 더 시킬까?”

군산에서 식당을 한다는 여자는 다소곳했다. 존대와 반말을 섞어가며 귀밀머리를 매만졌다. 머리를 하나로 묶은 탓에 밧그스레한 볼살이 도드라져 보였다. 엄마의 마지막 모습보다도 훨씬 젊고 어렸다. 나

는 아버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무슨 말이라도 해주기를 기다렸다. 아버지는 내 눈을 피했다. 나를 보면 엄마가 생각나서였을까. 차라리 그랬다면 이해할 수 있었다. 엄마는 절대로 그를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소주잔을 기울이며 뭐, 너도 알 만한 나이니, 하고 얼버무리는 건 정말 아니었다.

그날 처음으로 엄마가 불쌍했고 엄마의 죽음이 비참하게 여겨졌다. 나라도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가 가방을 만지면 지퍼 고리에 달린 작은 바비인형이 달랑거렸다. 여자와 바비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내가 인형을 계속 쳐다보자 민망한 듯 가방을 뒤로 옮겼다. 여자는 아버지가 잤을 기침할 때마다 휴지를 챙겨 왔다. 늙은이를 수발하는 요양 보호사 같은 느낌이 강렬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자는 내 이름이 대영이라는 것을 안 뒤부터 어떤 종류의 유대를 느끼는 것 같았고 나도 여자를 요양 보호사로 그만큼의 예의만 갖추기로 마음먹었다.

군인들이 자리를 배정받고 우리도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돈가스가 나오자, 바비씨는 내 눈치를 보며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천천히 먹어요. 여기 좀 닦고.”

냅킨을 꺼내 그녀의 손에 들려줬다. 옆 테이블에 앉은 커플이 빨간색 베레모를 보며 속닥거리는 게 느껴졌다.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식당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개업 첫날부터 이래도 돼요?”

바비씨가 직원에게 뭔가를 따지고 있었다.

급기야 빨간색 모자를 들고 금액을 깎아달라고 실랑이를 벌였다. 나는 벽면 목판에 새겨진 창업일을 보고 서둘러 계산하고 바비씨를 밖

으로 끌고 나왔다.

“자기는 내 편을 들어야지. 어쩔 수 없어?”

전철역으로 가면서 바비씨가 씩씩거렸다. 그녀는 수십 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 그날을 살고 있었다. 불평하는 소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긋거렸다. 나는 개업한 지 30년이 넘은 가게에서 무슨 추태냐며 소리 지르려다 참았다.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터틀넥이 목을 조여 왔다. ‘시발, 내가 왜 당신 편을 들어야 하는데!’

바비씨는 길가 화단에 앉아 모자를 손에 쥐고 영영 울었다. 순간, 가슴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열기가 정수리로 올라왔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전철을 탔다가는 그녀의 과잉된 감정을 수습하기에 감당이 안될 듯했다. 하는 수 없이 그녀의 팔을 잡고 다시 명동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상점마다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시즌 제품을 바깥에 진열했다. 비좁은 상점 거리에 특수를 노린 푸드트럭까지, 거리는 혼잡했다. 바비씨 뒤를 따라가다 극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과 어깨가 부딪혔다. 그녀는 어딘가를 정해 놓은 사람처럼 켜걸음으로 다녔다. 그녀를 놓칠 뻔하다 살랑거리는 베레모의 검은색 깃털을 보고 따라가기를 여러 번 했다. 여름 원피스를 그냥 입도록 놔둘 걸 후회도 했다. 추우면 집으로 돌아가자고 어린아이처럼 떼쓸 테니까.

그녀를 쫓으면서 그녀가 연기처럼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상상을 했다. 빨간 베레모가 보일 듯 말 듯 시야에서 멀어졌을 때 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치고 달아났다. 몸 안의 눅눅한 기운이 모조리 빠져나가는 시원한 기분이었다. 그녀가 뒤돌아서 빨리 오라며 손짓했다. 루돌프 인형 탈을 쓴 사람이 여자들에게 뭔가를 나눠 주었다. 나와와 거리가 좁혀지자 루돌프는 몇 개 남지 않은 홍보물을 선심 쓰듯 내밀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마스크 팩입니다. 사모님 드리세요.”

나는 그것을 피하려다 말로 밀쳤다.

“아내가 없어요.”

바비씨가 쪼그려 앉은 자리에는 황토색 개량 한복을 입은 노인이 팡이를 돌리고 있었다. 그녀는 신기한 듯 팡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팡이에 정신이 팔렸다가도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 뒤돌아 손을 흔들었다. 팡이 주위로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다. 아이 아빠가 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팡이를 빌렸다. 멀거니 서 있는 어린 아들에게 팡이를 돌려보게 했다. 아이는 팡이를 낮설게 쳐다보다 한두 번 해보더니 신난 표정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심드렁한 얼굴로 아이와 팡이를 내려다봤다. 저게 뭐라고.

나도 아버지가 팡이를 사다 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만지작거리던 아들을 위해 직접 조립하거나 돌리는 방법을 알려 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갖가지 팡이를 살 만큼 돈을 벌어서다 컸고 또다시 출장을 갔고, 그게 다였다. 항상 잔일은 엄마의 몫으로 돌아갔다. 출장에서 돌아오면 엄마에게 면세점 쇼핑백을 내밀었다. 그러면 공동육아의 책임 소재는 사라지고 잦은 출장이란 말로 모든 게 무마됐다. 복잡하고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 얼굴을 본 건 한 번뿐이었다. 아버지는 바비씨의 식당을 넓힌다는 이유로 보증금과 월세만 남기고 전세금을 빼 갔다. 훗날 늙고 병들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일말의 책임 조차 거부당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흥분했다.

부부 사이라는 게 돈 때문에 소원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원래 사랑이라는 게 분쇄기에서 파장된 한순간의 열기같이, 일시적 감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내 부모는 일시적 감정이 소진된 것뿐이라고 여겼다. 그래서였을까. 아버지는 엄마의 나무에 봄별이 비치기도 전에

바비씨를 만났다. 여자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고 여자의 뒤통으로 음식을 덜어주는 모습이 매스꺼웠다. 그가 택시를 타고 멀어지자 비로소 모체로부터 땀줄이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어이없게도 시야가 흐려졌다. 며칠 후 점퍼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쪽지 하나가 나왔다. 종이에에는 바비씨의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내 생일이 돌아오면 빼먹지 않고 용돈을 보내왔다.

“저기요, 옆으로 좀 가시면 안 돼요?”

내가 미동도 없자 옆자리에 있던 아주머니가 짜증을 냈다. 팽이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옆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아주머니에게 자리를 내주고 비켜섰다. 균형을 잡고 날렵하게 돌던 팽이가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몸체가 한 축으로 기울어져 금방이라도 바닥에 고꾸라질 것 같았다. 노인은 팽이가 무너지면 축을 살짝 대고 원상태로 되돌려놓았다. 무지개 무늬 팽이에 속도가 붙자 작은 바람이 주위 공기를 타고 솟구쳤다. 노인이 팽이를 순식간에 공중으로 띄워 다른 팽이 위로 날렸다. 순간 불꽃이 일 것같이 충돌하더니 바닥으로 튕겨져 내려갔다. 사람들이 환호하다 다시 숨죽였다. 넘어질 때까지 한 방향으로 돌기만 하는 팽이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빠른 회전력에 감탄했다. 세 개의 팽이가 서로 몸을 건드려 중심을 잃다가도 오뚜기처럼 되살아났다. 속도가 붙어 회오리처럼 격렬해지면 어디선가 신음이 들리는 것 같았다. 팽이를 잡아 버리고 싶은 충동에 움찔했다.

중국 관광객들이 깃발을 들고 구경꾼을 겹겹으로 에워쌌다. 바비씨는 공중에 희희 날아드는 팽이에 폭 빠져 있었다. 그녀가 사람들의 머리에 가려져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다. 그녀도 나의 존재를 잊은 듯 뒤 돌아보지도 않았다. 나는 조금씩 뒷걸음쳤다. 환호와 비난 속에서 뒤로 물러났다. 순간, 아버지 얼굴을 떠올렸다. 계속 그렇게 아버지를 생

각했다. 그래야 움직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아버지의 잔인한 피가 근육 사이로 유유히 흘러 다닌 결과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검은 머리 위로 팽이가 요란하게 솟구쳤을 때 단번에 뒤돌아섰다. 그리고 무조건 걸었다. 보폭은 빨라졌고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전철역 계단으로 뛰어 내려갔다.

도어록 열리는 소리가 났다. 열두 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바비씨가 현관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다. 꿈인가. 꿈이 아니었다. 쾅한 눈에 다크서클이 길게 내렸고 두 볼은 붉고 검었다. 한 손에는 검은 깃털이 반은 빠져나간 베레모를 움켜쥐고 다른 손에는 팽이를 쥐고 있었다.

“아직 안 잤니? 사람이 많아서 그만 놓쳐 버렸네.”

그녀는 잠깐 마트에 다녀온 사람처럼 담담하게 말하면서도 아래로 처진 어깨가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다. 길이 어긋나더라도 혼자 찾아올 수 있으니 앞으로는 기다리지 말고 자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밥은….”

내가 멧쩍게 물었다.

“낮에 돈가스를 너무 먹었나 봐.”

그녀는 배를 만지며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식탁에 뒤돌아 앉은 바비씨의 어깨가 들썩였다.

금요일 저녁, 회사 근처 고깃집은 만석이었고 시끌벅적했다.

“댁이 일산이세요?”

박 피디가 테이블 맞은편에서 물었다. 집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출퇴근은 어떻게 하는지 대학 때 전공이 뭐였는지 주말에는 뭘 하는지 나조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나에 관한 질문을 쏟아냈다. 출퇴근은 얼마 전 할부가 끝난 아반떼로 하고 대학 때 공연예술을 전공했지

만, 그와 상관없는 분쇄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주말에는 오롯이 혼자 지낼 수 있게 틈을 노린다고, 말하려다 김 상무가 불러대는 바람에 테이블을 옮겨 앉았다.

신영 홈쇼핑의 상품 기획자인 박 피디는 소형 가전 페스타에서 처음 만났다. 조개껍데기까지 분쇄하는 시연을 보고 관심을 가졌다. 그녀의 적극적인 권유로 홈쇼핑 업체를 미심쩍어하던 고령의 회장님을 설득해 판매 계약을 했다. 괴력의 분쇄기는 홈쇼핑 내 시연 평가단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아 주말 편성에도 올라갔다.

김 상무를 피해 나온 흡연실 구석에 박 피디가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안이 너무 시끄럽죠?”

그녀는 뭔가를 말하려다 내 핸드폰을 쳐다봤다. 무음으로 해놓은 핸드폰에서 불빛이 깜박였다. 집에서 열 통이 넘는 부채증 전화가 와 있었다. 박 피디와 좀 떨어져 작은 소리로 통화했다. 바비씨의 목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와 음량을 낮췄다.

“늦어요. 기다리지 마요.”

전화를 끊고 박 피디에게 자리로 돌아가자고 했다. 그녀는 할 말을 다 못한 뚱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택시가 강변북로를 거침없이 내달렸다. 한강대교에서 쏟아지는 네온 불빛이 강물에 가득했다. 차들은 질주하고 강물은 한 치의 흔들림이 없었다. 택시만이 불빛을 밟으며 달렸다. 박 피디가 결혼했는지 물었을 때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짐을 챙겨 바비씨를 데리고 온 날에도 그랬다.

“만나는 사람은 없냐.”

땀을 흘리다 아버지가 꺼낸 말은 아들의 연애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머칠 머물겠다는 말을 돌려 말한 것이었다. 그에겐 아직도 면회 때 탕수육을 먹던 설익은 아들로 멈춰 있는 것 같았다. 불쾌했고 무관심으로 그것을 향변했다. 어차피 출근하고 야근하면 얼굴을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다.

“근처에 마트가 있어요?”

바비씨가 집안을 둘러보고 물었다. 아버지는 걸옷을 챙기며 내게 앞장서라고 했다. 세 사람은 한 차를 타고 근처 대형마트로 갔다. 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 그리고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노인, 나는 그들과 떨어져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용무가 급해 화장실을 찾았다. 그녀는 정육 코너에서 고기를 골랐고 생수 한 묶음을 들고 끄덕였다. 내가 번쩍 들어 카트에 넣자 고맙다며 웃었다. 그리고 조금씩 말을 붙였다.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사야 할 생필품이 있는지 소소한 것까지 물었다. 불임성도 좋아 시식 코너의 홍보 직원과도 두부를 가지고 한참 얘기했다. 내가 근처에서 배회하자 직원이 힐끔거리며 손짓했다.

“신랑도 이리 와서 먹어 봐요.”

나는 당혹스러워 손을 내저었다. 그리고 곧 후회했다. 거기서 고작 손을 내젓는 정도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였다. 그녀는 얼굴이 벌게져서 두부를 카트에 넣고 서둘러 다른 곳으로 갔다.

바비씨가 밥을 차렸고 세 사람은 저녁을 먹었다. 누군가와 저녁을 먹는 일, 참으로 오랜만이였다. 그녀는 군산에서 식당을 한다고 한 말을 또 했고 나는 처음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멀치 조림에 손이 자주 가자, 간이 식당에서 일할 때 배운 건데 아버지도 좋아하는 반찬이라고 접시를 가까이 밀었다. 엄마의 밥상은 화려했지만,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보며 밥 먹는 시간은 재미없었다. 바비씨의 밥상은 디제

이 없이 음악만 흐르는 라디오 같았다. 내가 반응하지 않아도 마주 앉아 그때그때 생각나는 말을 했다. 아버지가 설거지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그시 바라봤다.

“불쌍한 사람 같으니.”

내게 들으라는 듯 중얼거렸다.

일거리를 찾아 지방으로 갔을 때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면 건디기 힘들었을 거라고 했다. 그녀가 차려준 식은 밥에도 온기를 느꼈다고, 그래서 자기에겐 과분한 사람이라 했다. 부대 앞에서 내게 전화번호를 주던 바비씨를, 나는 그때부터 알아봤다. 아버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비쳤다. 나는 미간을 찡그리며 몸을 움츠렸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살짝 날렸다. 찬 서리가 막 내려앉은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불에 썬듯한 기운이 와 닿았다. 꿈인지도 몰랐다. 불에 닿은 손끝은 얼굴선을 따라 턱까지 내려갔다. 차갑고 서늘한 느낌에 몸서리치며 일어나 앉았다. 바비씨가 소파 끝에 앉아 물끄러미 나를 쳐다봤다. 순간 소름이 끼쳤다. 어떤 날은 소파에 누워 있는 내 옆에 바짝 달라붙어 가슴을 쓰다듬어 놀라게 했다. 속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와 TV를 보면 나는 물만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언제부턴가 책상 위에 매일 아침 생수병이 하나씩 놓였다.

“속 괜찮니? 북엇국 끓여 놔어.”

그녀는 애꿎은 앞치마에 손을 비벼댔다.

“출근해야 해요.”

“그럼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바비씨는 차분했다. 나는 결눈질하며 그녀를 살폈다. 명동에서 내

가 혼자 온 걸 기억해 낸 걸까. 평소 같으면 토요일에 출근한다면 따라 나선다고 한바탕 난리를 쳤을 것이다. 오늘은 어딘지 달랐다.

편성된 시간이 다 되어 갈 무렵, 조마조마했던 주문량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다. 분당 올라가는 구매 수량을 보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마음으로 초조하게 기다렸다. 판매 종료 시각을 몇 분 앞두고 드디어 매진이라는 붉은 글씨가 화면에서 깜박였다. 쇼호스트의 흥분한 목소리에 직원들과 관계자들도 모두 숨죽였다. 모니터 화면이 다음 방송 광고로 넘어가자 직원들은 열렬하게 손뼉을 쳤다.

“김 팀장님, 축하주 해야죠!”

회식 장소로 출발한 팀원들이 한차례 빠지고 박 피디와 나는 나란히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지난 주말에 호수공원에서 팀장님을 본 것 같아요.”

박 피디가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나를 보며 말했다. 기억을 떠올렸다. 지난 주말이라면 근처 공원에 갔을 때를 말하는 것 같았다. 바비씨가 얇은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나가길래 공원까지 패딩을 들고 뒤따라 나갔다. 감기라도 걸리면 피곤해지는 건 나였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의 옷차림을 보고 수군댔다. 패딩을 전해주자 추운데 왜 나왔냐며 내 점퍼에 달린 모자를 씌워 주었다. 그게 전부였다. 박 피디의 말투는 무언가가 생략돼 계속 곱씹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놀이터 벤치에 앉았다. 아이들이 사라진 공간에 바람이 그네를 밀고 미끄럼틀을 타고 발밑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박 피디의 문자를 계속 쳐다봤다.

—아까 한 말 진심이에요. 사랑을 믿어 봐요.

술김에 한 말일 것이다. 매진 기록에 들떠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을 테고. 분쇄기 얘기를 하다가 무슨 말끝에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분명한 건 박 피디는 계속 뭔가를 얘기했고 나는 그녀의 불그레한 얼굴을 쳐다보고만 있었다는 것.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올려다봤다. 집은 어두웠다. 한 주먹의 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거실과 안방에 불이 꺼져 있고 베란다에도 빨래가 그대로 걸려 있었다. 해가 지면 옷이 눅눅해진다고 항상 미리 옷을 정리하던 그녀였다. 나는 가방을 메고 서둘러 집으로 올라갔다.

현관에 자동 센서 조명이 들어왔다. 캄캄한 거실을 맴도는 낮은 공기가 발끝에 걸렸다. 음식 냄새가 올라왔다. 거실 등을 켜고 주변을 둘러봤다. 텔레비전도 세탁기도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용했다. 나의 가쁜 숨소리만 집 안을 메웠다. 베란다에는 빨래 건조대에 셔츠가 삐곡히 걸렸고 냉장고는 반찬통들로 채워져 있었다. 식탁 아래 떨어진 교통카드 목걸이를 줌고 나서 그녀에게 전화했다.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다. 카드 뒷면에는 이름과 주소, 내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까지 그대로 꽂혀 있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어둠을 갉아먹는 동안 창밖은 서서히 짙은 푸른빛을 띠기 시작했다. 옷장에도 다림질한 셔츠가 걸려 있는 걸 보니 화가 났다. 지난번처럼 팽이를 손에 쥐고 집으로 찾아올지도 모르고, 요행이 순찰차 눈에 띄여 아무렇지도 않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바비씨는 과거 속에 머물며 제멋대로 행동했으니까. 그러다 싱크대 한쪽 구석에 있는 분쇄기가 눈에 들어왔다.

“선물이에요?”

회사에서 개발 중인 분쇄기를 가져왔을 때 그녀가 한 말이었다.

“선물이요? 아니, 그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자를 열어 분쇄기를 꺼냈다.

“어머, 예쁘다.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그녀의 표정은 결혼 반지라도 받은 사람처럼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분쇄기를 보고 그럴 것까지 있나 싶다가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흘렀다. 내가 만든 이 불품없는 기계를 예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것의 작동 여부에 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선물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어디인가 헤매고 있다. 현실이 아니라 과거 속이라면, 차라리 나올지도 몰랐다. 객식구를 제 자식처럼 해 먹일 일도 없고 괴팍한 늙은이의 요양보호사로 시간을 허비하는 날도 없을 테니.

깜박 잠이 든 사이 날이 밝았다. 집 안은 여전히 조용하다. TV를 켜다. 늘 그렇듯 아침 뉴스가 나오고 항상 나오는 영양제 광고가 나왔다. 세상은 어제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바비씨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스탠드 조명을 켜고 자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화면 아래로 한파주의보라는 날씨 예보만 연거푸 떴다.

탑 루프는 세종로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명소였다. 조금 늦게 도착한 나는 직원을 따라 예약석으로 갔다. 중앙 통로를 따라 야경이 훤히 내다보이는 창가 자리에 박 피디가 앉아 있었다. 은은한 조명이 하얀 테이블보를 지나 그녀의 컵볼에 머물렀다. 회사에서 볼 수 없었던 차분한 모습에 순간 당황했다.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기획 중인 시제품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와인을 마시며 야경에 취해 갔다. 피아노 연주에 구두 앞코를 까닥이다 그녀의 구두와 부딪히기도 했다. 스테이크를 자르면서 자꾸 한 사람이 떠올랐다. 바비씨는 맛집 탐방이나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면 보는 족족히 먹고 싶다고 했다. 말로 끝나지 않고 옷을 갈아입

고 나갈 채비를 했다. 그러면 배달 앱에서 비슷한 메뉴를 찾아 대신 시켜 줬다. 그녀는 다행히 그것 또한 즐겼다. 중요한 건 맛집이 아니라 먹는 게 중요한 의식처럼 느껴졌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그 이상의 노력은 하고 싶지 않았다. 바비씨의 행방은 생각할수록 꼬리의 꼬리를 물었다. 그럴 때마다 의식적으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러면 부채의식과 도리 그 언저리 어디에서 흔들리던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다.

레스토랑을 나와 청계천을 걸었다. 날카로운 바람이 고층 건물 사이로 휘몰아쳤다. 박 피디가 헝클어진 긴 머리를 쓸어 넘기며 물었다.

“무슨 생각해요?”

칼바람과 그녀의 말 중 어떤 게 먼저였는지 모른다. 그녀가 다가와 목도리를 꿇볼까지 끌어당겼다. 목도리를 추어올릴 때 장갑에 달린 부드러운 털이 턱선을 간지럽혔다. 칼바람이 무색할 정도로 얼굴이 화끈거렸다. 폭신한 장갑을 끼고 롱부츠를 신은 여자는 칼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추워 보이지도 않았다. 한겨울에도 여름 치마에 발등이 흰히 보이는 구두를 신은 여자와는 태생적으로 달랐다. 멀리서 롯데 백화점이 보였다. 거리는 주말 인파로 북적였고 입을 벌린 고래처럼 사람들을 빨아들였다. 그날도 사람들을 삼켜 버린 거라고, 그 안에 바비씨가 있던 것뿐이라고 기억을 재구성했다.

공사 중인 명동예술극장 앞에 천막과 커다란 무대가 만들어졌다.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로 무대가 잘 보이지 않았다. 박 피디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숙 빼고 까치발로 섰다. 관객들 머리 위로 불붙은 막대가 오르락내리락하며 공중에서 뿔뿔였다. 구경하던 몇몇 사람들이 대열에서 빠져나가자 무대의 일부분이 보였다. 모자를 쓴 사내가 불 막대와 사과를 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저글링을 했다. 바람이 불어

불 막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우우우우. 관중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내는 불 막대를 양철통에 옮겨놓고 주머니에서 팽이를 꺼내 돌리기 시작했다. 그 뒤로 천막 문이 살짝 열리면서 안에서 뭔가 획 지나갔다. 어두운 실내에 또렷이 보인 것은 빨간색이었다. 마치 그것만 전속력을 다해 움직이는 것 같았다. 문이 닫혔다. 박 피디가 춤다며 카페를 찾았다. 나는 뒤돌아서며 공중을 오르내리는 팽이를 쳐다봤다. 앞줄에 바비씨가 앉아 있을 것만 같았다.

근처 카페로 갔다. 코트를 의자에 걸쳐놓고 반소매 차림의 여자들이 모임을 하고 있었다. 테이블과 의자는 손님들에 의해 여기저기 옮겨졌고 음악 소리와 말소리가 뒤엉켜 시끄러웠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을 때 무슨 일인지 밖에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게 느껴졌다. 음악이 소거된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어디선가 먼 비명이 들렸고 사람들이 일제히 바깥을 쳐다봤다. 예술극장 쪽에서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불꽃이 타올랐다. 그곳을 멍하니 바라보다 밖으로 뛰어나갔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천막에도 불이 붙었다. 옆에 쌓여 있는 자재들이 위협해 보였다. 흠어진 관중은 발을 동동 구르며 불이 치솟는 광경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바람이 불어 길바닥에 뿌려진 광고 전단지 하나둘 천막 위로 날았다. 불쏘시개가 되어 타올랐다. 그때 천막 문이 열리더니 아까 그 사내가 허둥지둥 뛰쳐나왔다. 천막 안에 빨간색의 물건이 획 하고 지나갔다. 사람 같기도 하고 물건 같기도 했는데 실체를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작고 또렷한 빨간색이었다. 자꾸 신경이 쓰였다. 사내는 모자를 쓴 채 옷에 얹드려 토하듯 기침했다. 안에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헉헉댔다. 내가 천막 가까

이 가려 하자 박 피디가 팔을 잡았다.

“어디 가요?”

“여기서 기다려요.”

박 피디를 물러서게 한 뒤 천막 내부가 잘 보이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대한 고개를 빼고 안을 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사내가 상체를 일으키자 옷에서 팽이가 떨어져 나왔다. 그가 모자를 벗고 침을 뱉었다. 눈은 초점 없이 흔들렸고 입술은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순간 사내의 얼굴을 보고 뒷걸음쳤다. 명동에서 팽이 쇼를 하던 그 노인이었다. 천막 안을 쳐다봤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려왔다. 노인의 옷깃을 잡고 다그쳤다.

“저 안에 사람이 있냐고요!”

노인이 수신호를 하듯 손을 허우적거렸다. 건설회사 이름이 적힌 조끼를 입은 남자가 나를 밀치고 그를 부축해 데려갔다. 불길어 천막 위로 솟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멀찍이 피했다.

“위험하니 물러서요.”

내가 그곳을 떠나지 않자 관계자 몇 명이 내 팔을 거세게 잡아당겼다.

“저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다고요!”

고함을 쳐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기 시작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사람들을 헤치고 소방관이 고무호스로 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왜 그래요. 정신 좀 차려요.”

박 피디가 팔을 잡아끌어도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내 머릿속엔 현상된 필름처럼 빨간색 모자만 맴돌았다. 경찰이 무전을 하며 아무도 없다고 했지만 믿을 수가 없다. 야광 조끼를 입은 남자가 또다

시 나를 위험 경계선 밖으로 끌어냈다. 천막 지붕 위에 불기둥이 하늘로 솟구쳤다. 팽이가 공중에 날아들고 빨간 베레모의 깃털이 나풀거리며 하나의 그림처럼 춤추던 그날, 그날부터였다. 정작 뜨거운 열기 속에 그녀를 밀어 넣은 건 노인이 아니라 나였다는 것을. 갑자기 불덩이가 무섭게 달려들었다. 검은 연기가 빨간 베레모의 검은 깃털처럼 공중에 하늘거렸다. 나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저 안에 아내가 있어요!”

조선희

동국대 문예대학원 소설 전공, 2021~2022년 인터넷 스포츠 경향에 장편소설 『세라의 티키타카』 연재

통영 문학기행

—한국의 나폴리 통영, 문학의 숨결을 따라 걷다

김경재 | 시인

2025년 6월 13일, 14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우리는 통영 출신 작가들의 숨결이 머무는 문학관과 생가를 찾아가는 문학기행의 노정에 올랐다.

통영이 사랑하는 바다와 골목, 그리고 예술의 향기가 서린 공간들을 찾아가며, 작가들의 문학적 영감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느껴 보고자 했다.

먼저 찾은 곳은 김춘수 전시관과 생가 그리고 청마 유치환 문학관이었다.

바다를 향해 열린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마치 그들의 시 한 구절처럼 고요하고 깊었다.

이어 박경리의 생가터로 향하니, 산자락에 둘러싸인 그 자리에서 문인이 탄생했다는 전설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지금은 이름 모를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서니 여전히 ‘대작가의 기운’ 이 느껴졌다.

동피랑 벽화마을의 골목마다 그려진 벽화들은 미술관을 방불케 했다.

김상옥 생가, 전혁립 미술관, 윤이상 기념관을 차례로 둘러보며 통영이 얼마나 많은 예술인을 품어 온 도시인지를 실감했다.

그 시절 작가들의 숨결이 살아 있었다.

통영의 바다는 아늑했다. 푸른 파도와 함께 걸은 바다 둘레길에서는 새벽의 태양이 붉은 자태를 드러내며 떠올랐다.

바닷가에서 갓 구운 빵냄새에 이끌려 따라가 보니 통영의 명물이라는 꿀빵을 만들고 있었다. 몇 개를 사서 기행에 함께 한 이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그 순간의 따뜻함이 뻘뻘한 일정으로 인한 피로를 잠시나마 씻어 주었다.

돌아오는 길, 보슬비는 더위를 식혀 주고 햇볕은 구름에 가려 있었다.

달마산 케이블카를 타고 하늘 아래 바다를 굽어 보며, 달아공원, 이순신공원, 서피랑마을을 차례로 지나자 마음 한 켠에 잊지 못할 풍광이 새겨졌다.

마지막으로 맛본 조개의 구수한 참맛까지 통영의 바다는 예술과 삶의 향기로 가득했다.

이번 통영기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그곳의 작가들이 남긴 문학의 숨결 속에서 우리 또한 마음의 한줄 시를 얻어 돌아왔다.

김경재

2023년 《문학, 상》(시) 등단

오늘의 중구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중구대회●

심사평 사고의 깊이와 표현의 균형 | 김도경

<새마을작은도서관부>

대상 | 『침묵의 봄』을 읽고 | 방혜리

<초등부>

최우수상 | 『쓰레기 없는 쓰레기통이라고?』를 읽고 | 이주아

<고등부>

최우수상 | 『멸종을 선택하지 마세요』를 읽고 | 황서윤

<일반부>

최우수상 |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를 읽고 | 장태기

사고의 깊이와 표현의 균형

김도경 | 시인

우선 성인부에는 직장인 응모자가 많았다. 바쁜 와중에도 책을 읽는 아름다운 마음에 책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작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이 있는 사유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았으며, 책의 주제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통찰력 있게 해석하는 작품들도 더러 보였다. 저자의 의도를 자기 경험과 가치관으로 재해석한 작품들도 인상적이었다. 한 편의 독후감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철학이 느껴지는 글들을 보며 즐겁게 심사를 할 수 있었다.

독후감이란 저자의 메시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성실히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일상 속 사례와의 연결이 자연스러워 글에 생동감을 주며, 사고의 깊이와 표현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글들이 많아 뿌듯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문장력이었다. 글의 완성도와 생각의 진정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 문장력을 기르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책의 핵심 내용을 충실히 요약하고, 읽는 과정에서 느낀 감상을 솔직하게 전한 점들은 인상적이었다. 몇몇 글들에서는 독자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담담하게 보여 주었다. 앞으로 더 폭넓은 독자와 글쓰기를 통해 다음에는 보다 좋은 독후감으

로 만났으면 한다.

학생부는 창의력이 돋보이는 글들이 많았다. 작품의 내용을 단순히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제의 의미를 스스로 탐구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책을 읽으며 느낀 생각을 평소 생활과 진솔하게 연결한 점과 어린이들 특유의 생동감이 있는 언어가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책을 읽고 느낀 감정과 깨달음을 또래의 시선으로 솔직하게 풀어낸 작품들이 많아 인상적이었으며, 독서 후 생각의 변화를 보여 주는 작품도 있어서 좋았다. 다소 표현 면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려는 태도와 자신만의 해석이 돋보이는 것 같았다.

아직 문장의 흐름이나 어휘 선택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독서에 대한 흥미와 성실한 태도가 돋보였다.

어린 학생들이 앞으로도 꾸준한 독서와 글쓰기 훈련을 통해 성장하고 책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글들을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린다.

『침묵의 봄』을 읽고

—침묵의 봄, 다시 쓰다

새마을작은도서관부__대상 | 방혜리(청구동)

윤택한 생활을 보장하는 ‘개발’이라는 이름의 신축 아파트는 고급스럽고 깔끔하기 그지없는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최신식 아파트였다. 우리 가족은 실거주 목적의 집 한 채를 항상 꿈꿔 왔고, 남편과 나는 큰 결심 끝에 대출을 받아 이 집을 매입하였다.

아기자기하게 집을 꾸미고 싶다는 마음은 항상 굴뚝 같았지만 그동안 집주인 눈치에 벽에 못질 한번 제대로 못하며 살아온 서러움이 마음속에 썩여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이 우리 집이라니!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썩여 있던 감정들이 눈물로 터져나왔다.

5분만 걸어가면 3년 전 개통한 지하철역에 당도할 수 있는 역세권이 라는 점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집 근처에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는 하천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받아 입주하던 첫날의 설렘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며칠을 뿌듯한 마음으로 잠들었고, 설레는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했다. 그렇게 행복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입주한 지 겨우 넉 달이나 지났을까. 맑게만 흐를 것 같던 하천이 쇠파리가 너무 많이 생겨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하루아침에 산책은커녕 하천 근처를 지나가는 것조차 어려워져 버렸다. ‘창궐’이라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것 같았다.

주민들의 빗발치는 항의가 이어졌고, 결국 구청에서는 긴급 예산을 편성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살충제를 뿌리는 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쇠파리의 개체 수는 급감했고, 하천은 다시 쾌적한 환경을 되찾았다. 그러나 두 달여에 걸친 방역 작업이 끝난 지 2주쯤 지났을까. 시도 때도 없이 잔기침이 나기 시작했고 기침 때문에 밤에 잠마저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처음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자 남편도 자꾸 기침을 하며 목의 통증을 호소했다. 그리고 머지않아 룡지가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다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것이다. 룡지의 소식을 들은 다음 날, 해순 할머니마저 갑자기 호흡 곤란으로 쓰러지셨고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왔다.

개발 아파트의 주민들의 다수가 날이 갈수록 가슴 압박감과 호흡 곤란, 두통,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해 왔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쇠파리 방역 작업에 사용된 살충제에 포함되어 있던 ‘염화메틸렌’ 이었다. 이 성분은 체내에 들어가 일산화탄소를 생성하고 결국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 살충제라는 물질 자체에 있지 않다.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자연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이기적인 사고방식에 있다. 자연의 자정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즉각적인 편의만을 추구하며 진행되는 개발은 곧 ‘해충 박멸’이라는 명목으로 이어지고 다시 독성 물질 남용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라는 악순환을 만든다.

위의 사례는 가상의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일어날 법한 경고를 담고 있다. 작은 곤충 몇 마리를 없애기 위해 뿌린 화학 물질이 결국 인간을 없애 버린다면? 인간 박멸은 결코 과장이 아닐지도 모른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에는 해충을 없애기 위해 뿌린 살충제

제초제 등으로 인해 절멸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사례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름철마다 모기 기피제를 난사하다가 썩썩거리며 모기 잡으려다가 사람 잡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경험은 누구나 해보았을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1954년, 미시간 주립대학의 조류학자 조지 윌러스와 제자 존 메너가 수행한 올새 연구다. 살충제가 직접적으로 닿지 않았음에도, 그 살충제가 묻은 토양에서 자란 지렁이를 먹은 올새가 중독되어 죽었고, 결국 올새들의 번식력에도 문제가 생겨 절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런 간접 중독은 올새뿐 아니라 지렁이를 먹이로 삼는 다양한 조류와 포유류에게도 치명적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식탁 위에 올리는 인간 역시 이 연쇄 작용 끝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공포는 결코 비약이라 할 수 없다.

『침묵의 봄』에 기록된 사례들은 무려 약 70년 전인 1950~60년대에 일어난 일이다. 반세기 이상이 지난 지금, ‘이제는 살충제가 좀 더 안전하게 개발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길 법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유독 물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예가 바로 러브버그 창궐 사태다. 은평구는 2014년부터 봉산에 편백림을 조성하기 위해 참나무와 아카시아를 제거하고 단일종 편백나무만을 심었다. 그 결과 생태계의 다양성이 삽시간에 무너졌고, 대벌레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1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충제를 살포했지만 대벌레와 유사한 곤충들까지 함께 죽으면서 봉산의 생태계는 더 불균형해졌다. 게다가 그 틈을 타 외래종인 러브버그가 들어와 개체수가 폭증하는 2

차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러브버그의 창궐은 단순히 해충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자연의 복잡한 균형을 ‘단일종 조성’이라는 개발이 깨뜨린 결과이며,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살충제 살포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악순환의 한 단면이다. 우리는 곤충을 익충과 해충으로 구분하지만, 그 기준은 ‘오직 인간에게 이로운가 아닌가’로만 결정한다. 단어의 형성과 분류 자체가 철저히 인간 중심적이라는 말이다. ‘개발’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 또한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유용하게 만듦’인데, 이 유용성 또한 역시나 인간에게 실익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린다.

인류가 생성되기 훨씬 이전부터 생태계를 구성하는 대기, 토양, 물 등의 무기환경과 동식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하며 오랜 세월 동안 정교한 균형을 이루어 왔다. 인간에게 생명으로 가득 찬 생태계를 파괴할 권리는 없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과 다를 바 없이 지구에 얹혀사는 존재일 뿐이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적 질서에 개입하여 간단한 유독 물질로 잠깐의 쾌적함을 얻으려는 시도는 결국 인간 스스로를 해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마련이다.

진정한 쾌적함은 기술적 개발이나 편의성 추구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연과의 공존과 균형 속에서만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진다. 이제는 질문을 바꾸어야 할 때다. 우리는 자연을 더 ‘잘’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자연의 언어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쓰레기 없는 쓰레기통이라고?』를 읽고

초등부_최우수상 | 이주아(홍인초 5학년)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올해는 너무 덥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날씨가 이렇게 더워진 데에는 학교에서도 많이 들었던 지구 온난화가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뜨거워져 열대과일이 재배된다는 이야기, 북극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빙되면서 수천년 동안 얼어 있던 동물들의 사체로부터 나온 병원균과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이 널리 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등의 이야기들을 들었다. 그때 나는 단지 ‘우와! 우리나라에서도 바나나, 망고가 열리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도서관에 갔을 때 읽을 책들을 보던 중 『쓰레기 없는 쓰레기통이라고?』라는 책 제목을 보고 책 제목이 이상해서 꺼내 보게 되었다. 이 책은 브르탱 씨 가족의 냉장고와 부엌에 쌓인 쓰레기와 식품들 속에서 지내다 막내 오스틴은 ‘쓰레기 제로’ 제안을 받게 되었다. 가족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웃집의 환경 보호 실천 소식에 영감을 받아 집에 쌓인 포장용품과 일회용품을 몰아내고 쓰레기 없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쓰레기 없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귀찮은 일을 시작한 것 같아서 특히 누나와 삼촌은 좋게만 보지 않았다.

오스틴의 ‘쓰레기 제로’ 도전은 투자 없이 이뤄지지 않는다. 오스틴이 엄청난 돌풍을 일으킨 것 같아서 매우 겁이 난다고 했다.

브르탱 씨 가족은 퇴비통을 만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하며 도전을 지속하지만, 익숙한 생활 방식과 편리함, ‘이 정도면 괜찮지’란 마음의 유혹에 여러 번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그러나 이웃도 도전한다는 소식에 다시 동기 부여를 받아, 가족은 목표를 향해 협력해 나가며 성장하게 된다. 이웃과 함께 포장 없는 식료품을 사거나 다시 쓰는 생활을 시도하면서 브르탱 씨 가족은 점차 변하게 되었다. 브르탱 씨 가족들은 욕실에서 쓰는 것들과 화장품들 까지도 천연으로 만들어 쓰기도 했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 날씨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른다.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집 앞 아이스크림 가게를 갔다 와도 땀이 줄줄 흘러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샤워를 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쓰는 바디 워시, 샴푸, 비누들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어서 담아 놓은 플라스틱 통들이 환경 오염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을 읽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편리하게 쓰고 먹으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품들 중 지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엄마가 어느 기사에서 나왔던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들이 카톡을 사용할 때 글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내용을 보관하고 보내기 위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이때 엄청난 열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러면서 전달할 내용만 보내고 쓸데없는 메시지는 보내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셨다. 그때는 뭐라고 하셔서 기분만 나빴는데 지금까지 친구들과 보냈던 메시지들을 생각해 보니 지구 온난화의 원인 중 하나인 것 같아서 지구

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생활들을 돌아보니 환경 보호가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다. 내가 오늘 쓰레기를 하나 덜 버리는 것, 외출 시에는 가지고 다니기 조금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텀블러에 물 담아 다니기, 집에서는 물티슈 사용하지 않고 빨아서 쓸 수 있는 걸레 사용하기 등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면서 브르탱 씨 가족처럼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실천한다면 더럽고 귀찮게만 생각했던 쓰레기들을 퇴비로 사용하고 다시 재사용하며 지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정말로 책 제목처럼 쓰레기통이 없는 세상이 올 수 있을 것만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멸종을 선택하지 마세요』를 읽고

고등부_최우수상 | 황 서 윤(보성여고 3학년)

이 책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환경 위기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책이었다. 책 제목부터 강렬한 울림을 주었는데, 마치 인류가 이미 멸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경고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선택'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 덕분에, 우리가 아직 길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느낄 수 있었다.

저자는 다양한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의 감소, 자원 고갈 같은 문제들이 단순히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읽으며 무겁게 다가왔다. 특히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불쌍하다'라는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무관심이 만들어 낸 결과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평소 환경 문제를 뉴스를 통해 접하긴 했지만, 그 심각성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선택, 생활 습관이 결국 지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강하게 전달했다.

읽는 내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무심코 일회용품을 쓰고, 편리함을 이유로 대중교통 대신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작은 행동들을 가볍게 여겼던

적도 많았다. 그러나 저자는 개개인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든다고 강조한다. 나의 사소한 선택이 누군가의 삶과 지구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자, 부끄러움과 동시에 새로운 다짐이 생겼다.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환경 문제를 단순한 절망으로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자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독자에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일회용품 줄이기, 재활용 생활화, 대체 에너지의 필요성 등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었다. 나는 그중에서도 ‘소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왔다. 풍요 속에 살면서도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했던 우리의 태도가 결국 멸종을 불러온다는 경고는 깊이 와 닿았다.

책을 덮은 뒤 나는 ‘멸종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인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겼다. 그리고 나의 삶의 방식을 조금이라도 바꾸기로 결심했다. 비록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이어 나간다면, 그것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작가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결국 간단했다. 인류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후손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멸종을 선택하지 마세요』는 나에게 단순한 환경 도서를 넘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나는 지구의 일원으로서, 생태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다. 멸종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의 일상에서 실천을 시작할 것이다.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를 읽고

— 숨을 산다는 것에 대하여

일반부_최우수상 | 장태기(중구)

“오늘 미세먼지는 매우 나쁩니다. 야외 활동은 자제하세요.”

달리기를 취미로 삼은 나는, 하루를 정리하는 저녁 햇살 속에서 바람과 함께 뛰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긴다. 땀이 식어 갈 무렵, 내 몸의 호흡은 자연과 맞닿아 있었고, 살아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달리를 하기 전 확인해야 할 건 날씨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되었다. 하늘이 아무리 맑아도 스마트폰 화면에 붉게 표시된 미세먼지 지수를 보면 발걸음이 멈춘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노려 보며, 그 탓을 중국으로 돌렸다. 뉴스 속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문장은 마치 주문처럼 반복되었고, 내 숨을 방해하는 적이 국경 너머에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정작 그 공기의 정체에 대해 알고자 한 적이 있었던가.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책을 펼친 순간, 내 안의 인식이 깨지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다. 작가는 통계와 자료를 토대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한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는, 과거보다 오히려 나아졌다. 과거엔 지금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를 매일 들이마시고도 불만 한마디 없이 살아왔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더 불안해한다. 왜일까?

이 책은 그 이유를 ‘인식의 프레임’에서 찾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숫자와 색으로 시각화한 앱, 자극적인 헤드라인 기사, 공포를 반복하는 방송, 이 모든 요소가 우리를 하여금, 공기의 실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재앙을 떠올리게 만든다. 마치 깨끗한 유리창에 검은 필름을 덧씌운 듯, 우리는 현실보다 더 어두운 공기를 상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나 또한 그 틀 안에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 틀 안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외부의 문제라 믿는 순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은, 그 안일함을 무너뜨렸다. 미세 먼지의 주요 원인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난방을 틀고, 자동차를 몰고, 건설 현장을 지나치며 우리는 매일 대기오염을 만든다. 작가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강조한다. 중국을 원망하기 전에,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우리가 켜 히터, 편리함이란 이름으로 소비한 모든 것들이 다시 우리 폐로 돌아온다는 점을. 이 깨달음은 나를 정면으로 때렸다. 피해자가 아니었다. 가해자이기도 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건 무척 불편한 일이었다. 마치 거울을 들여다 보다가, 그 속에 낯선 얼굴을 본 느낌이었다. 하지만 불편함은 곧 변화의 출발점이다.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어디서부터 실천을 시작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플로깅을 알게 되었다.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이 운동은, 나의 달리기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끌었다. 전에는 완주와 속도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작은 담배꽂초 하나에도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플라스틱 조각 하나를 주우며 다시 달리기 시작할 때, 숨결 하나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정화하고 있다고 믿었다.

달리기는 내 몸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지구와 함께 호흡하는 일이 되었다. 작은 하나의 실천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한 명의 작은 용기로 시작한 실천이 다른 이들에게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숲은 나무 하나로 시작되듯, 변화도 그렇게 시작되는 법이다. 이따금 운동 중 마주치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내가 들고 있는 쓰레기봉투를 보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이들도 있다. 아주 작은 공감이지만, 그 고개 끄덕임은 또 다른 시작이 된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는, 영국 예술대 학생들이 만든 ‘물주머니’ 이야기였다. 해조류 추출물로 만든 이 물주머니는 먹어도 해가 없으며, 흠 속에 묻으면 6주 안에 사라진다.

그들은 전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마라톤 대회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컵 쓰레기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했다. 한 명의 문제의식은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만들어 냈다.

마치 중요한 호수에 떨어진 조약돌 하나가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듯, 작은 문제의식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나는 생각한다.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인 편리함, 소비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일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세상의 첫걸음이라고. 이 책은 그 질문을 내게 남겼다. ‘당신이 들이마시는 숨은 누구의 선택 위에 있는가?’ 이제 운동을 떠날 때, 오늘의 날씨와 미세 먼지 수치를 확인하는 동시에 마음의 공기 상태도 들여다본다. 내 숨결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오늘도 작은 봉투 하나 들고 달린다. 그것은 혼자만의 숨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위한 숨이다.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는 내게 묻는다. 숨을 산다는 것, 그것

은 어떤 책임을 뜻하는가?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하고 싶다.
“오늘, 숨을 지키기 위해 달린다.”

중구의 인문학



●명동 문학기행●

근대 명동과 여성 문학의 자취 | 권 은(한양대학교)

근대 명동과 여성 문학의 지취

권은 | 한양대학교



일시: 2025년 10월 17일(금) 오전 10시~오후 1시

장소: 서울시청 구청사(경성부청 터)~명동성당

“날두 이렇게 풀렸는데 우리 혼부라(본정으로 산보한다는 말)나 한번 허구 들어가자꾸나.” (심훈, 『영원의 미소』)

• 주요 답사 경로

1. 조선일보사

2. 경성부청

- | | |
|-------------------|--------------------|
| 3. 조선평텔-환구단 | 4. 미츠코시-조선은행-경성우편국 |
| 5. 은성주점 터, 돌체다방 터 | 6. 명동예술극장 |
| 7. 서울 YWCA | 8. 명동성당 |

1. 조선일보사

이곳은 식민지 시기 대표적 언론사, 조선일보가 있던 자리입니다. 신문은 여성 작가들에게 등단의 통로였습니다. 나혜석은 이 신문에 신여성의 목소리를 기고했고, 박화성도 연재소설을 통해 독자와 만났습니다. 여성 문학은 신문이라는 근대 매체와 함께 세상에 나왔고, 그 안에서 ‘여성의 글쓰기’가 공론화될 수 있었습니다.

최은희: 국내 최초의 여기자(조선일보). 3·1운동에 참여하여 옥고를 치렀고, 일본 유학 후 조선일보에 입사하여 기자로 활동했다. 후배



●—1935년 6월 10일 준공된 조선일보 태평로 사옥

여기자들을 위해 사재를 기탁하여 1984년 ‘최은희 여기자상’ 이 제정되어 매년 우수 여기자에게 수여되고 있다.

기자 출신 여성 문인: 김말봉, 김명순, 김오남, 김원주(元周), 김자혜, 노천명, 모윤숙, 백신애, 송계월, 이선희, 장덕조, 차묘석, 최정희 등

나혜석과 최은혜의 관계: 〈아우 추계(秋溪 최은혜)에게〉, 〈최초의 유화가 나혜석〉

2. 경성부청

조선총독부를 비롯해 경성부청, 경성역, 조선은행, 경성상공장려관, 중앙전화국 같은 공공건물과 백화점, 호텔, 아파트 상점, 신문사 사옥 등의 민간 건물이 서양식 혹은 혼종적 양식으로 우후죽순처럼 세워졌고, 5, 6층짜리 고층 빌딩들도 출현했습니다. 신식 건물들과 함께 이전



●—1930년대 초 경성부청의 전경

까지 보지 못했던 간판과 광고, 쇼윈도우, 상품 진열대가 거리 곳곳을 장식했으며, 1920년대 말 등장한 네온사인은 경성의 밤을 호화롭게 밝혔습니다.

경성일보사(당시 경성부청 위치): 1921년 경성일보의 <내청각>에서 한국 여자 서양화가 최초로 70점의 작품을 전시.

경성부청 호적계: ‘이혼’을 통한 자각

“세 사람을 태운 자동차는 남대문을 지나 부청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리고 있다.”(김말봉, 『밀림』)

3. 조선호텔(현 웨스틴 조선호텔)—환구단

조선호텔은 근대 커피 문화의 상징적인 장소로, 1914년 문을 연 조선철도호텔의 후신인 현재의 웨스틴 조선호텔이 그 명맥을 잇고 있음



●—1930년대 조선호텔 양식당 ‘팜코트’에서 커피를 마시는 최승희

니다. 당시 호텔은 외국인을 위한 장소이자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중심지였으며, 서양식 다방과 커피 문화를 보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쪽빛처럼 푸른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높는데 그 푸른 하늘의 정령인 듯 산들산들 나래를 흔들고 지나가는 가을바람이 한여름 동안 시달린 사람들의 피부에 분수처럼 스며드는 날 성장한 신사 숙녀들로 가득 찬 조신포텔 대식당에서는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김말봉, 『밀림』)

“내가 지금 조신포텔에 가서 토마토 먹고 오는 길이야.”(최정희, 『토마토 철학』)

조용한 후면 종려나무 아래 둥근 탁자를 에우고 네 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아 그들은 젊은 사람들만이 맛보는 즐거움과 흥분에 사로잡힌 채 명랑한 그러나 교양 있는 미소가 쉴 새 없이 서로의 얼굴을 파수보고 후원에 의젓이 떨어져 있어 조선의 역사와 전설을 안고서 있는 환구단의 지붕 위에는 저녁놀이 연연하게 타고르고 선미를 가하여 손질하여 놓은 정원 어느 구석에서인지 췌르르 치 하고 벌레 소리가 들려온다.(김말봉, 『짚레꽃』)

최승희: 1937년부터 1940년까지 3년간 미국과 유럽, 중남미를 순회하며 주요 극장에서 무용 리사이틀을 연 원조(元祖) 한류 스타였다. 한국 예술가의 첫 구미 순회 공연이었다. 유럽에서만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를 다녔고, 미국과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페

루, 우루과이 등을 돌았다.

4. 선은전광장(미츠크시(미군 PX)–조선은행–경성우편국)

미츠크시 백화점은 여성 소비 문화를 겨냥한 공간으로, 신여성들이 근대적 생활을 체험하는 장소였습니다. 조선은행과 우편국은 근대 금융과 통신의 중심지였지요. 나혜석이나 주요섭 작품 속 ‘도시적 여성상’은 이런 공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쇼윈도에 비친 여성의 모습, 소비와 욕망의 대상이 된 여성의 모습은 근대 여성 문학에서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상품 그 자체가 스펙터클이 되어 갖는 위력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은 백화점이었다.”(데이비드 하비)



●—1930년대 경성 미츠크시 백화점 전경

“신철이는 도망하듯이 미츠코시 문 밖을 나섰다. 그는 한숨을 후 내 쉴 때 땀방울이 등허리를 씻어 근질근질하게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이가 무는 것같이 등허리가 가려우나 지나가고 오는 사람들의 눈이 어려워져 서서 굽지도 못하고 걸어가려니 땀만 부진부진 더 났다.”(강경애, 『인간문제』)

출입문이 면한 뒷골목은 외등 하나 없고 단 하나 맞은편 냄비우동집의 희미한 유리문이 오히려 주위의 어둠을 한층 칙흑으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종종걸음으로 어두운 모퉁이를 재빨리 벗어나 환한 상가로 나섰다. PX를 중심으로 갑자기 발달한 미근 상대의 잡다한 선물 가게들….

사단이나 군단의 마크를 수놓은 빨강고 노란 인조 머플러, 담뱃대, 소무리, 낫그릇, 별로 신기할 것도 없는 그런 가게 앞에서 나는 기웃거리며 될 수 있는 대로 늑장을 부리다가 어두운 모퉁이에서는 숨이 가쁘도록 땀박질을 했다.

그러나 변화가인 충무로조차도 어두운 모퉁이, 불빛 없이 우뚝 선 거대한 괴물 같은 건물들 천지였다. 주인 없는 집이 아니면 중앙우체국처럼 다 타버리고 윗구멍이 행 뚫린 채 벽만 서 있는 집들, 이런 어두운 모퉁이에서 나는 문득문득 무섭을 탔다.

어둡다는 생각에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생각이 겹쳐오면 양키들 말따나자 갓땀 양구, 갓땀 철원, 문산 그런 곳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너무도 가까운 것 같아 나는 진저리를 치며 무서워했다.(박완서, 『나목』)

여인들의 눈 앞에는 거울이 있고, 나목에게는 아직 멀지만 봄에의

믿음이 있다.

봄에의 믿음.

나목을 저리도 깨끗하게 함이 바로 봄에의 믿음이라.

나는 옥희도씨가 바로 저 나목이었음을 안다.

그가 불우했던 시절, 온 민족이 암담했던 시절.

그 시절을 그는 바로 저 김장철의 나목처럼 살았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또한 내가 그 나무 곁을 잠깐 스쳐간 여인이었을 뿐임을,

부질없이 피곤한 심신을 달랠 녹음을 기대하며

그 옆을 서성대는 철없는 여인이었을 뿐임을 깨닫는다.

—(박완서, 『나목』)

박수근의 <나무와 두 여인> 연작



●—PX에서 초상화를 그리는 박수근(왼쪽에서 세번째)

5. 은성주점과 돌체다방 터

여기는 명동의 대표적 문인 아지트였던 은성주점이 있던 자리입니다. 술자리 중심의 문단 문화는 대체로 남성 작가들이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여성 문인들은 주변화되거나, 때로는 배제의 경험을 했습니다. 전혜린은 한국 여성 문인 중에서 “실존주의적 감수성을 가장 선명하게 구현한 수필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글은 단순한 개인 고백이 아니라, 1960년대 한국 여성 청년의 불안과 욕망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세대적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짧은 생애로 인해 신화적 이미지가 덧입혀졌고, 지금까지도 전혜린은 “자유를 갈망하다 요절한 여성 지식인”의 아이콘으로 회자됩니다.

“그것이 헛된 일임을 안다. 그러나 동경과 기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무너져 버린 뒤에도 그리움은 슬픈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나는 새해가 올 때마다 기도드린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어떤 엄청난 일, 매혹하는 일,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나는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모험 끝에는 허망이, 여행 끝에는 피곤만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잘 안다.”(전혜린, 『먼 곳에서의 그리움』)

거리만이 그리움을 낳는 건 아니다.
아무리 네가 가까이 있어도 너는
충분히, 실컷 가깝지 않았었다.
더욱 더욱 가깝게, 거리만이
아니라 모든 게, 의식까지도 가깝게

가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움은.

—(전혜린, 『그리움』)



●—1930년대 경성 명치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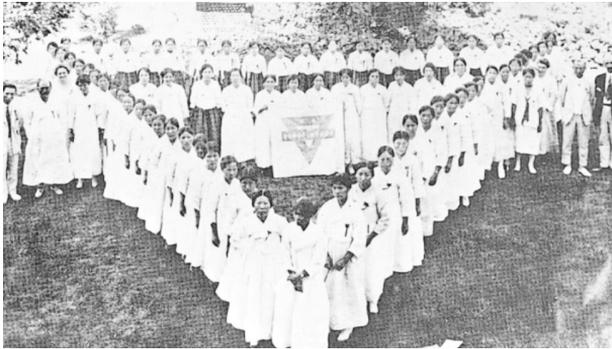
6. 명동예술극장

이곳은 명동예술극장, 근대 극예술 운동의 심장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무용가 최승희는 이 무대를 통해 여성 예술가로서의 주체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문학과 연극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선 여성의 몸, 목소리는 곧 사회적 발언이었고, 남성 중심 문학장을 뚫고 나온 여성적 예술 실천이기도 했습니다. 여성 국극은 1950~196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공연 예술로, 여성 배우들이 남성 역할을 포함해 모든 배역을 맡아 창극이나 가무악극을 공연했습니다. 명동 국립극장은 당시 여성 국극 공연이 활발했던 주요 무대 중 하나였으며, 현재의 명동에

술극장이 그 맥을 잇고 있습니다.

“초석과 소라는 나란히 걸어서 명치좌를 향했다. 그러나 소리는 명치좌에 갈 생각이 없고 좀 더 다른 극장으로 가고 싶었다.”(이선희, 『처의 설계』)

7. 서울 YWCA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창립발기대회(1922)

이곳은 서울 YWCA 자리입니다. 신여성 운동의 거점으로, 직업 훈련과 교육을 통해 여성들이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문학은 여기서 여성 운동과 맞닿았습니다. 여성 문학은 개인의 감정 서술을 넘어서, ‘여성 사회 참여의 기록’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성 작가들이 여기서 새로운 네트워크와 자각을 키워 갔습니다.

심훈의 『상록수』의 주인공 채영신의 실제 모델인 최용신은 1931년

10월 10일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샘골에 한국YWCA ‘농촌지도원’ 으로서 파견되었다. 1934년 봄까지 2년 6개월 동안과 1934년 9월부터 이듬해 1월 중순 사망하기 직전까지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8. 명동성당



●—1987년의 명동성당

이곳 명동성당은 단순한 종교 공간을 넘어선, 한국 근현대사의 문화적 상징입니다. 여성 문학 속에서는 종교가 여성에게 주어진 구속이자 동시에 해방의 길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또한 이곳은 민주화 운동의 성지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명동성당 앞에 서면, 근대 여성 문학의 종교적 자아성찰에서 민주화 시대 문인들의 사회적 발언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학과 사회가 함께 겹쳐지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건 초석 씨가 다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탓인데 우선 그 대학의 연구실이 중세기적인 것과 명치정 천주교당이라든지 이 바닷

가라든지 다 중세기적 낭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왜 이런 곳으로 오셨습니까?”

“글쎄올시다. 내일이라도 이 중세기적 낭만을 없이할 근대도시로 달아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본격적인 근대 색깔이 있어야지...”(이선희, 『처의 설계』)

이선희: 개벽사 기자 출신

명동성당: 고딕양식

권은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2003),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현대소설 전공으로 석사(2008) 및 박사학위(2013)를 받았다. 서강대학교 대우교수(2013~2016),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및 부교수(2016~2025)로 근무하였다. 2025년부터 한양대학교에서 한국근현대소설과 디지털 인문학을 담당하고 있다. 경성의 도시공간과 문화, 모더니즘 문학, 디지털 문학 지도 구축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구의 문화예술



●제25회 명동 시낭송콘서트●

'명동은 흐른다' 후기 | 류순이

●중구민 시낭송대회●

중구민 시낭송대회 20주년 기념 공연 | 조은경

‘명동은 흐른다’ 후기

류순이 | 수필가, 중구 퇴계로

명동은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중심지이자 쇼핑의 메카로 불린다. 브랜드 로고와 외국어로 가득한 쇼윈도와 간판, K-뷰티, 케이팝 굿즈 매장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을 만큼 관광객으로 붐빈다. 길거리에 즐비하게 늘어선 포장마차에는 호떡, 붕어빵, 회오리 감자, 닭꼬치, 랍스터 버터구이, 즉석 과일 음료 등 다양한 간식거리를 맛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다. 밤이 되면 반짝이는 간판과 함께 거리는 더욱 화려해진다. 이처럼 명동을 떠올리면 화려한 이미지로 단순히 쇼핑하고 즐기는 곳으로 알고 있지만, 명동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우리나라 천주교 성지 명동성당은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겪으며 기도와 희망이 커켜이 쌓여 있는 장소다. 화려한 쇼핑거리 가운데 ‘사유의 공간’으로 묵직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공간이다.

명동은 한때 문학과 예술의 성지였다. 카페와 다방, 작은 극장과 출판사가 촘촘히 자리해 있었고, 젊은 시인·소설가·화가 등 예술인이 모여 밤새 토론을 이어 가던 곳이었다. 그들은 명동의 골목 어딘가에서 시대의 분위기를 토해내고 서로의 생각을 부딪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냈다. 지금은 사라진 카페 ‘르네상스’와 ‘은성’ 같은 공간은 당시 문인들의 사랑방이자 거점이었다. 명동은 한국 현대문학의 열기가 뜨겁게 살아 있던 곳이었다.

지금의 명동에서는 그 시절 문인들의 흔적을 쉽게 찾기 어렵다. 세

월에 묻힌 그 숨결을 안타깝게 여긴 권태성 전 중구문화원 부원장, 신영진 중구문화원 이사, 김도경 한국여성문예원 원장이 명동을 다시 문화예술의 성지로 되살려 보자는 마음을 모아 명동 시낭송콘서트를 시작했다.

명동 시낭송콘서트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1월 14일 25회 콘서트를 중구청의 지원으로 서울중구문화원과 한국여성문예원 주관으로 YWCA 강당에서 진행하였다. 서울의 중심이자 예술과 문학의 중심 중구와 명동을 재조명하고 한국 문인과 그들의 작품을 소개하며 시낭송과 당시 명동 이야기를 작가에게 직접 듣는 자리로, 문학을 통해 명동의 가치를 일깨우는 명실상부한 대표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명동은 흐른다’를 주제로 이이향 시인의 차분한 사회로 진행되었다. 먼저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하이라이트 영상이 이진화 성우 내레이션과 함께 상영되었다. 단순한 기록을 넘어 문학을 지키기 위해 애써 온 시간의 숨결을 생생히 전달했다.

오프닝으로 ‘임장순과 친구들’의 클래식 기타 연주에 이어 김길성 중구청장, 남월진 중구문화원장, 권태성 명동타워빌딩회장, 신영진 이사, 연기자 최불암, 소설가 김훈 등 명사들은 명동의 추억과 시간, 문학의 의미를 담은 축사를 영상으로 이어 갔다.

초대 성악가 소프라노 강태은의 ‘동심초’와 ‘돌아가는 꽃’ 공연 후에는 특별초대석 도종환 시인에게 명동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작곡가 이진섭 선생의 ‘명동은 정치와 돈이 침투할 수 없었던 인간의 영토가 아니었던가, 실로 사람 냄새 나는 인간의 영토였다.’라는 문학적 표현을 인용하며 좋아한다고 했다. 네 돈 내 돈 따지지 않고 밤 깊이 서로 마시면서 가난하면서도 왕자처럼 떠들며 그 황홀한 연

대로 문화적 자존심과 예술적 자존심을 갖고 버티던 곳”이 명동이라고 했다.

이진섭, 박인환, 나애심이 모인 자리에서 즉석에서 시를 쓰고, 작곡하고, 노래했다는 〈세월이 가면〉을 소개하면서 젊음과 낭만, 꿈과 산다는 것의 슬픔과 재능이 융합된 그 순간은 명동이 기억해야 할 영원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당시 외상으로 술을 마시며 주모에게 ‘꽃 피기 전에 갚을 테니까 술 좀 더 달라’고 했다는 일화를 얘기하다가 명동의 주제가라고도 하는 이 노래를 불렀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들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흩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를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이렇게 즉흥적으로 반주도 없이 유명 시인의 노래를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

명동백작 이봉구, 조병화, 양명문, 오상순, 마해송, 박계주, 송지영, 선우휘, 천경자, 김환기, 정환수, 전광영, 정환모, 조지훈, 김관수, 윤용하, 김수영, 박서구, 이상, 이용학, 변영로…

전쟁 이후 가난 속에서도 문학과 예술을 향한 열정으로 밤을 지새우고 명동을 지키며 서로에게 위로받던 곳이었다.

명동은 우리 문학이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시간을 품은 공간이었다. 가난한 현실 속에서도 예술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열망이 모여 순수와 낭만, 실존과 퇴폐가 뒤섞인 채 새로운 현대문학을 태동하던 자리였다.

도중환 시인은 ‘세월이 가면’ 처럼 1956년에만 머물러 있는 노래가 아니라 이후 세대로 이어지는 명동의 문화는 지금도 살아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70년대 문학 청년 시절 명동을 회상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시 명동의 풍경이 되살아나는 듯한 감동이 밀려왔다.

이어서 명동에 관한 시낭송을 낭송가 이옥희, 정선근, 이주은이 정해종 시 〈흐르는 명동〉, 김동리 시 〈명동의 달〉, 박인환 시 〈목마와 숙녀〉를 낭송했다. 앞서 박인환 시인 에피소드를 들어서인지 이주은 낭송가의 ‘목마와 숙녀’는 가슴을 파고들었다.

마지막 순서로 함께 부르는 명동 초대가수 해바라기가 무대에 올라 ‘내 마음의 보석상자’, ‘어서 말을 해’, ‘사랑으로’로 이어진 감미로운 목소리는 공연장을 감동으로 가득 채웠다. 깊은 여운 탓에 앙코르가 이어졌고, 관객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노래 속에 사연도 있고, 추억도 있고, 사랑도 있고, 행복도 있고, 위안도 있고, 꿈이 있고, 건강도 있고, 노래 속에 시가 듬뿍 들어 있는 이 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라며 부른 ‘내 마음의 보석상자’, 그리고 이번 행사 초대를 받고 10월 말에 발표했다는 신곡 ‘당신이 나의 봄이죠’ 노래 가사는 한 편의 시였다.

1973년 명동 가톨릭회관 해바라기 홀에서 노래를 부른 후 그룹 이름을 해바라기로 지었다는 해바라기 공연은 명동 시낭송콘서트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한국여성문예원 김도경 원장은 “2015년부터 10년 동안 명동에 대한 재발견 작업을 이어 오고 있다. 문학의 힘으로 흐르기에 명동이 더욱 가치 있어 보인다. 혼자가 아니라 많은 분과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며 참석한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명동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 왔다. 그 변화의 이면에서 명동의 문학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 명동 시낭송콘서트는 바로 그들이 만들어 낸 작은 불빛 같은 행사다. 그 불빛이 1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이어져 온 것처럼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지면 좋겠다.

행사가 끝난 뒤 명동은 그저 흐르는 것이 아니라 흐르면서 계속해서

잊혀 가는 문화를 다시 찾아내는 곳으로, 명동은 언제까지나 문학의 거리로 살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쇼핑이나 관광으로 명동을 찾더라도 잠시 발걸음 멈추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면 좋겠다. 그 속에서 예술과 삶이 교차하던 그 시절 명동이 품은 흔적이 조용히 말을 걸어올지도 모른다.

오늘도 명동은 흐른다.

중구민 시낭송대회 20주년 기념 공연

— ‘역대 수상자 모임’ 공연을 마치고

조은경 | 시낭송가, 중구 다산로

‘시(詩)가 머물다’

서울의 중심! 중구의 중심!

신당동 ‘충무아트센터 씨네마’ 그 작은 공간에 우리들만의 무대가
올려졌다.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중구민 시낭송대회와 인연이 닿은
것은 길가의 플래카드였다.

‘뭐야?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육아로 워킹맘으로 지쳐 가던 내 심장이 아직 꿈틀거리는 걸 느끼게
해 준 문구, ‘제11회 중구민 시낭송대회’

‘그래 나 중구민이잖아. 문의라도 해보자.’

시낭송의 ‘시’ 자도 모르던 30대에 조은경의 도전이 시작되었다.

2016년 제11회 첫 도전 본선 탈락.

2018년 제13회 두 번째 본선 탈락.

지금 생각해 보면 시낭송을 배운 적도 없으니 떨어지는 것이 당연했
을 법도 한데 그 당시는 뭐가 그리도 억울했었는지….

대회장 안에서 매년 떨어지던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이영혜 선생

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젊은 사람이 참 열심히 하는데 내가 좀 가르쳐 줄까요?”

서로가 경쟁자일 것인데도 먼저 다가오는 손길에 적잖이 놀랐으나 갈급한 부분이었기에 바로 수락했다. 국어 선생님이로 은퇴하셨기에 학생과 선생님처럼 툼툼이 만나 문정희 시인의 〈우리들 마음속에〉를 수백 번 낭독하고 낭송했다.

결과는 2019년 제14회 대상 수상!

이제는 첫 무대에 서는 분들을 보면 “나도 저랬었지~” 하며 그때 생각이 나서 미소 짓게 되는 여유가 생겼다.

2006년부터 중구청이 후원하고 한국여성문예원 주최하는 행사로 시작된 이 대회를 통해 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2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하는 “시낭송가 조은경입니다”라는 인사를 시작으로 2025년 11월 24일의 사회자 멘트를 하고 있다. 한국여성문예원을 통해 배출된 역대 수상자들의 모임에 함께하게 된 것이다.

이날 오프닝 무대로는 ‘장충동 난타 비너스’의 축하 공연이 있었다.

트로트 ‘찢이야’로 시작해서 ‘빛속의 여인’ 그리고 로제의 ‘아파트’까지 관객들의 흥을 돋우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한국여성문예원 김도경 원장님의 환영사와 김영수 시낭송회 회장님의 축사로 문예원의 역사와 활약상을 알려주셨고 장소를 협력해 주신 박매리 충무아트센터 씨네마 주민운영위원님까지 만나 보았다.

1회~19회까지의 모든 수상자들이 함께였다면 더 좋았을 테지만 바쁜 가운데도 여전히 시낭송 수업을 놓지 않는 광희동 팀의 시낭송으로 1부가 시작되었다.

재능시낭송가협회 2024년도 회장이신 이주은 낭송가님을 강사로 하여 지금의 김종대 선생님께서 수업 중인 광희동 팀은 무대 2시간 전부터 목소리 톤, 마이크, 음향, 등·퇴장, 무대 위치까지 꼼꼼한 리허설의 진수를 보여 줬다.

제18회 대상 수상자이기도 한 한국여성문예원의 김정재 이사님께서 광희동 자치위원으로 이 모임에 많은 힘을 쓰고 계셨다.

다음은 시낭송대회 수상자들로 구성된 '풍경 극단' 5인(김순자, 라옥렬, 류순이, 이영혜, 조은경)은 연출 김혜영 님의 각색으로 구성된 낭독극 '그 여자네 집' 을 무대에서 선보였다.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낭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낭독극을 통해 사회 전반의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었다.

시낭송 공연 2부는 역대 수상자들의 쟁쟁한 시낭송 순서로 이어졌다. 어떤 때는 낭송을 듣고 울컥하여 사회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목이 메기도 했다.

11월 27일 중구구민회관 1층 강당에서 열리는 '제20회 중구민 시낭송대회' 에 앞서 이런 의미 있는 축제를 진행하는 내내 참 행복했다. 내년에도 제20회의 수상자들과 함께할 것을 기약하면서 한국여성문예원의 중구민 시낭송대회가 인연이 되어 만들어진 무대라는 점에 감회가 새롭다.

제23회 중구문예문학상

<일반부>

- 시 부문 최우수상 | 잃어버린 허공과 남은
허공의 여백 사이에서 | 오 청
우 수 상 | 네가 아는 나는 내가 아니다 | 김영희
가을 내장산 | 김완수
차 상 | 엄마의 반달이 | 김경희
종로3가의 기억 | 이수미
밥술 | 조혜숙
11월의 사색 | 최은경

- 수필 부문 최우수상 | 숨바꼭질 | 고미령
우 수 상 | 멧돌 같은 사랑 | 최점순
짧은 인연 | 황분란
차 상 | 커다란 빈자리를 지금도
메꾸고 있습니다 | 김미경
불편한 진실 | 조연수

<학생부>

- 시 부문 최우수상 | 불멸의 영웅 이순신 | 안지우
우 수 상 | 무지개 자전거 | 이준서
지구의 SOS | 정단아
차 상 | 우리 안의 동물들 | 강명승
소나기 | 이윤주
야빠 냄새 | 이정원
유령의 진짜 모습 | 최재원

- 심사평 하나의 돌맹이와 작은 풀잎이 만들어 낸 신비 | 라은채

이어버린 허공과 남은 허공의 여백 사이에서

최우수상 | 오청

여기까지 달려와 뒤돌아보니
세월을 밀어준 바람 탓으로
정신없이 끌려왔다
하얀 눈썹 훈장 달고
하늘 가까운 간이역에서
갈대처럼 서성이고 있다

흘린 눈물은 바다를 채우고
땀방울은 산을 허물면서
긴 터널 지나
늙은 박으로 철들게 했지만
헤아릴 수 없는 숫자는
쓰레기처럼 커커이 쌓여 간다

덧셈과 뺄셈의 교차로 위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면서
걸음 수에 눈치 본다
홀로 서 있는 나목의
단풍잎에 침묵으로 기도하듯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시간표 앞에서

허공과 허공의 여백 사이에서

바보 이름표 달고

바보처럼

바보처럼

그래도 묵묵히 살아야 한다고

내가 아는 나는 내가 아니다

우수상 | 김영희

내가 아는 나는 내가 아니다.
초겨울 들녘 바람에 찢기듯 서 있는
불꽃없는 가시나무이다.

뿌리째 뽑힌 잡초를
끝내 놓지 못하고
피 울음 삼키는 나이다.

경복궁 벤치에서
언젠가 올 너를 기다리며
차가운 숨을 여미는 나이다.

내가 아는 나는 내가 아니다.
밀려드는 배를 밀어내지 못한 채
침묵으로 오늘을 견뎌내는 나이다.

가을 내장산

우수상 | 김 완 수

산바람보다 먼저 깬 솔부엉이가
 감감해진 기슭을 두리번거린다
 내장산의 가을은 울음이 물드는 시간
 밤마다 뜬눈으로 자락을 들추던 새는
 바람에 산(山)이 기척을 낸 줄 알았을 것이고
 달빛에 산봉들이 들썩인 줄 알았을 것이다
 푸른 불당을 지키는 굴거리나무들
 가을밤이 색색의 소리로 타든다

골짜지에서 물소리가 염불처럼 피어오르면
 숲은 잎잎이 원적암 계곡으로 공양하고
 경청의 귀깃을 쫓긋대다가
 젖은 소리를 물안개같이 뿔었을 새
 가을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겠다는 듯
 생가지를 움켜쥔 채 숲을 떠나지 않는다

솜이 쭈신 풀벌레들이 어둠을 갑작거려도
 부리만 달짝거릴 뿐 꾸벅하지 않는 새
 하늘이 빗발 죽비(竹篋)로 숲을 때릴 땐

중구문예문학상

불면의 소리로 졸음을 떨친다
 산도 산문(山門)도 밤에 열렸으므로
 목청껏 새우는 밤은 여름낮보다 환하다

울음은 내장산이 품은 보물
 암자에 들이치는 적요(寂寥)에도
 새는 기척을 굶이지게 된다
 소리가 켜어질 때 맺히는 자줏빛 구슬
 울음이 사리(舍利)가 된다
 후우, 후우 길한 소리로 익어 가는 밤에
 산도 잠귀를 열고 잠드는데
 울음이 제일가는 문장(文章)이라는 것을
 나는 왜 이제야 알았을까

엄마의 반달이

차상 | 김경희

순간
엄마의 눈망울이
처음으로
태양을 삼킨 양
반짝거렸다.

당신의
밝고 낮은
늙수레한 속옷부터 삶는다.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을
찾기라도 하듯이
당신이 유일하게 시집 올 때 이고 지고 온
반달이를 거칠게 열어제껴
무언가를 찾는다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반달이 안의 물건은

차츰 사라져
지금은 거의 빈 상대지만
뭘 그리 정신없이 찾는지
당신 이마의 땀도 그렇그렇하다
당신 더운 눈두덩이에 눈물까지 그렇그렇하다

당신의 혹독한
시집살이를 이 잡듯이 찾아서 없애 버리려는지
엄마는 무작정 반닫이 속을 쥐 잡듯 헤집는다

난 오늘도 엄마를
무작정 기다려 준다
엄마가 나를 반듯하게 키워 주셨듯이

망할 놈의 시집살이 기억
고양이 쥐 잡듯 없어지길 바라면서...

종로3가의 기억

차상 | 이수미

피카디리 극장 앞에서
 전날 봤어도 또 보고 싶어
 가슴 졸이며 기다리던 그 시절
 그녀의 가녀린 옆모습만 스쳐도
 마음이 붉게 물들던
 순수한 설렘 하나

서른 해를 돌아
 종로3가 낮익은 거리
 우연처럼 마주쳤던 인연
 지금은 어디선가
 잘 살아가고 있으리라
 그 미소
 변함없이 곱겠지

만약 그때
 이 간절함을 알았다더라면
 우리의 길은 달라졌을까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앞에

문득 밀려오는 후회
그 찰나의 아픔

눈가에 어리는 이슬
그렵다
그 시절의 해맑은 웃음
신미숙...
정말, 많이 보고 싶다

밥솥

차상 | 조혜숙

밥이 몽실몽실 웃는다
 솥 안에 엉겼다
 식탁에서 맛나게 놀길 기대하며

할머니는
 보약이니 달게 먹어라
 멸치 반찬 아들에게 밀어놓고
 아버지는
 초딩 아들 밥 옆에 눈치보며
 샤편시 밀며

밥그릇 비워야 게임 선물
 할아버지 쫓쫓 혀 차시며
 그놈의 게임 으이고

쨍그린 듯한 손녀
 달달하게 아양 댄 콧소리로
 새 신발 즐라댄다

중구문예문학상

할머니 씹짓돈이
사랑해요 하며 웃는
보조개 한번 보고 싶어
아껴 둔 돈
사랑약으로 나간다

11월의 사색

차상 | 최은경

빛은 낮게 기울고
그림자는 길게 자란다

나무는 잎을 버리며
자신의 고요를 드러낸다

바람은 맑아진 마음처럼
세상을 비워 낸다

남은 것과 사라진 것이
서로의 자리를 바꾼다

사라짐은 사유의 시작
건담 속에 철학이 자란다

11월,
고요가 말을 걸어
남은 빛이 마음에 앉는다.

숨바꼭질

최우수상 | 고미령

‘꼭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주일마다 교회 유치부 선생님이로 봉사하고 있는 나는, 때때로 아이들과 인근 공원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곤 한다. 놀이를 할 때는 나만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술래가 될 때는 아이들을 찾아도 모른 척해 주고, 아이들이 술래가 될 때는 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배려하고 이해할수록 아이들의 즐거움은 배(倍)가 된다. 사실 이 방법은 내가 어렸을 적 부모님께서 내게 전수해 주신 방법이기도 하다. 제한된 공간에서 부모가 어린 자식의 서투른 움직임을 찾는 방법은 쉬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땀을 흘리며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두리번거리실 때, 어린 나는 혼자만의 스티를 만끽하고 있었다. 반면에 내가 술래가 되었을 때는, 찾기 쉽도록 옷장 뒤에서 슬며시 발가락을 보여 주기도 하시고, 의자만 치우면 보이는 식탁 밑에 숨기도 하셨다. ‘배려’라는 어려운 단어를 따뜻하게 체득하게 된 순간이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님과 숨바꼭질은 점점 복잡한 게임이 되어 갔다.

초등학교부터 이어졌던 모범적인 학창 시절의 일상이 불만이었던 나는, 서서히 공부를 등한시 하게 되었다. 양서(良書)를 읽는 것보다

만화방의 자극적인 소설과 잡지가 편하고 익숙해졌다. 당연히 성적은 하향 곡선을 그렸고, 부모님께 결과가 좋지 못한 성적표를 내놓고도 죄송스런 마음조차 없었다. 자식의 진정한 마음을 찾고 싶었던 술래가 된 부모님의 마음은 참담했을 것이다. 어린 자식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수많은 ‘배려’를 보여 주셨던 부모님과 달리, 나는 당신이 나의 진심을 찾지 못하도록 반칙을 쓰면서까지 마음을 꼭꼭 숨기고 있었다. 그렇게 부모님의 일방적인 가르침보다 나의 결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지내는 동안, 꽤 오랜 시간의 방황의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우연히 보게 된 가계부 안의 엄마의 일기를 읽으며, 나는 통한의 눈물을 쏟아냈다. 내가 말을 듣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사랑의 매를 들었던 날은, 당신의 육신이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아픔이었다. 성적이 떨어져 좋은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더라도 그저 건강하고 착하게만 자랄 수 있도록 신께 바라던 당신의 절절한 기도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식이 미울 법도 하였으나, 아픈 손가락이었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다는 당신만의 어법(語法)에 가슴이 저렸다.

훈육(訓育)하고자 썼던 부모의 방법이 결코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소망하시던 당신의 마음은, 바로 무한한 배려가 덧입혀진 ‘사랑’이었다.

술래가 된 자식이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찾게 된 순간이었다.

지나날을 되돌아보니, 어려운 삶 속에서도 부모님의 입에 붙은 단어는, 사랑과 포용의 말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내가 당신을 향해 던진 말들은 때론 비수(匕首)처럼 쏘여 오래도록 당신을 아프게 할 단어들이 많았다. 당신은 매사에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조언

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나는 항상 내 의견을 답으로 정해 놓고 부모님의 의견에 반기를 들었다. 나의 생각이 최선이고 정답이라 착각하곤 했다. 어느 순간 부모님은 나의 이기적이고도 무차별한 공격이 날아가면 그것을 피하지 않고 일부러 맞거나 그 아픔까지도 순순히 흡수해 버리는 것도 같았다. 사랑하는 자식이기에 어쩌면 가슴으로 들려질 아픔의 충격까지도 온전히 감내한다는 뜻이었으리라. 그리고 오래도록 기다려 주셨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회개하듯 고개를 조아리며 당신에게 다가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소통하게 되었다.

그 후로 다시 마음을 다잡은 나는 최선을 다해 학업에 열중했고 우등 졸업으로 대학 과정을 마쳤다. 음지(陰地)에서 방황하던 내가, 장학금 수혜까지 받으며 우등 졸업하던 날, 부모님은 꽤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셨다. 그간의 죄송스러웠던 날들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 같아 뿌듯한 마음까지 들었다. 하지만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식을 키워 주신 부모님께 보답했다는 기쁨도 잠시, 나에겐 '취업'이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 있었다. 부모님 세대만 해도 가정 환경이나 배움의 정도에 따라 취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컸지만,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높아진 우리 세대에겐 우수한 고학력자들도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학 졸업 후, 몇몇 기업에 제출한 포트폴리오가 덜컥 채택되면서 순순히 풀리는가 싶었다. 하지만 항상 중도에 쓰디쓴 탈락의 경험을 맛봐야 했다.

몇 번의 불합격을 겪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내 자신이 끝 모를 나락으로 추락하는 듯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사회는 우수한 인력들로 넘쳐났고 그 안의 경쟁을 뚫기란 어려운 일임을 실감했다.

한동안 나는 모든 일에 있어 의욕을 잃고, 무계획의 삶으로 허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밥 먹었니? 건강 잃지 않도록 식사는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라.”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한답시고 어느새 1년이 지나가던 시점이었다. 밤늦게까지 원서를 읽다가 정오가 되어서야 눈을 뜬 내게 일터에 나가시던 부모님이 남겨 주신 쪽지가 있었다. 취업 준비생으로 집에 있는 동안에도, 매일 머리맡에 남겨 주시던 메시지였다. 그러나 그날따라 그 문장은 조금 다르게 읽혀졌다.

“그만하면 됐다. 잘했다. 취업을 하든 못하든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그렇지만 그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 사랑한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어릴 적 숨바꼭질을 하던 나의 부모님과 다시 조우(遭遇)하게 된 것이다.

술래가 된 부모님은 나를 단번에 찾아내고도 못 찾은 척 자식을 위해 사랑의 연기를 하고 계셨다. 최고의 학업 과정을 마치고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를 보며, 누구보다 노심초사하고 걱정하신 분도 당신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연이은 불합격으로 낙심하는 동안 부모님께선 단 한 번도 취업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 그저 나의 건강만을 염려하시며 매일의 날들이 평온하고 행복하도록 응원해 주셨다. 술래가 된 부모님은 취업에 실패하고 오랜 시간 힘들었을 자식의 마음을 읽어 내시곤, 조용히 마음을 보듬어 주기만 하신 것이다.

또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바라봐 주신 부모님 덕분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숨바꼭질을 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찾아내려고, 혹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식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부모님께서 하시는 선의의 거짓말이나, 부모님께 누(累)가 될까 조심하는 나의 서투른 행동에도, 이젠 그 안에 담긴 속뜻이 사랑으로 읽혀지곤 한다.

술래가 된 나를 두고 공원 곳곳으로 숨어 버린 아이들을 찾는다.

그런데 그중의 한 녀석이 바위 뒤로 엉덩이를 쭉 내밀고 있다. 일부러 찾으라는 신호였다.

“선생님이 저희들을 위해 항상 술래 해주시려고 하는 거 다 알아요! 다음엔 제가 술래 할게요!”

놀이를 통해 벌써 배려와 사랑을 배운 아이….

소중하고 따뜻했던 부모님과과의 숨바꼭질이 사랑으로 스며드는 오후다.

맷돌 같은 사랑

우수상 | 최점순

시골집 정원에 맷돌 한 쌍이 다정한 친구처럼 놓여 있다. 집주인의 고매한 인품을 느끼는 순간이다. 곡물을 갈았던 윗돌과 아랫돌의 사이에 파란 이끼가 퍼져 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품듯, 아래쪽이 위쪽을 품고 있다. 사랑과 인생도 맷돌처럼 돌고 도는 건가.

움푹한 윗구멍에 곡물을 넣고 돌리던 암맷돌. 그 아래에서 묵묵히 받쳐주던 숫맷돌. 어처구니는 언제 빠졌는지 곡물을 넣던 구멍과 위 아래 면에 빛바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다. 맨살을 맞대고 얼마나 돌고 돌았기에 거친 부분이 모두 깎여 나가고 거울처럼 매끈할까. 돌 두 개가 한 쌍이 되려고 부딪히며 견뎌낸 시간 속에서 곡물을 갈아 가족의 허기를 채워 주었으리라. 어찌면 인생의 질곡을 함께 건너온 노부부의 모습이 저렇지 않을까.

부부의 삶도 맷돌을 돌리는 일과 다르지 않다. 서로의 모난 부분을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티격태격하고 서로 부딪힌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 다른 세계관으로 밀고 당기지만, 상대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평화로울 수도 까칠하게 살 수도 있다. 사랑에 눈이 멀었던 신혼 시절엔 상대방이 백마를 탄 가장 멋진 왕자, 아름다운 공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보니 드러나는 걸모습보다 성격인 어울림과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맷돌은 어떤 세월을 품고 여기까지 흘러왔을까. 화산이 폭발할

때 화강암 조각이 굴러다니다가 우연히 짝이 되었다. 옛날 어느 석공이 뾰족하던 돌을 깎고 다듬었을 거다. 그 후 거친 곡물을 갈면서 돌은 조화를 이루며 돌고 돌지 않았을까. 오랜 세월 식구가 많았던 집 부엌에서 쉽 없이 돌아가며 서로의 몸을 달구고 깎여 나가는 고통을 견뎠으리라. 맷돌이 제 살 깎아내는 고통처럼 인생의 온갖 풍파를 함께 극복하면서 살아왔던 부부도 비슷하지 않을까.

맷돌의 울퉁불퉁한 표면에서 곡물이 갈린다. 윗돌 구멍 귀퉁이에 끼운 어치구니를 잡고 돌려야 하는데 곡물을 잘 갈려면 물을 조금씩 부어야 부드럽게 돌아간다. 부뚜막에서 혼자 돌릴 수 있지만, 두 사람이 어치구니를 잡고 물에 불린 콩이나 녹두, 쌀가루를 갈 때 호흡이 맞아야 튀지 않고 둥근 흠을 따라 통에 고인다. 부부의 삶도 호흡을 맞춰야 평화가 깃든다. 그러나 허물을 서로 감싸주지 않으면, 한쪽으로 힘이 쏠려 자식들이 었나갈 수도 있다.

시골에서 어머니에게 두부 만드는 비법을 전수하였다. 하룻밤 물에 불린 콩을 갈아 자루에 붓고 콩물을 짜냈다. 가마솥에 콩물을 붓고 장작불을 지펴 끓였다. 몽글몽글 거품이 끓어오르면 간수를 한 바가지 둘러 가라앉혔다. 삼베 자루에 뜨거운 콩물을 퍼 담아 네모난 나무틀에 넣고 맷돌로 눌러놓으면 단단한 두부가 되었다. 구수한 냄새는 바람을 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웃과 함께 마당에 깔아놓은 멍석에 둘러앉아 두부를 나누어 먹으며 두부처럼 부드러운 인정을 쌓았다.

콩 농사를 많이 한 집에서는 두부를 자주 만들었다. 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를 주절주절 나누며 완성된 두부에 양념간장을 뿌려 한 조각씩 나눠 먹는 동안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무엇보다 떠돌이 새우젓 장사나, 맨발에 누더기를 걸친 걸인도 그날만큼은 허기진 배를 든든히 채울 수 있었다. 그 모든 과정에는 두부처럼 말랑말랑한 어머

니들의 정성이 스며들었다. 비록 전통 방식은 느리지만, 그 느낌 속에는 돌고 돌았던 인정이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

위아래 돌이 한 쌍의 맷돌이 되기까지 세월이 흘렀다. 이 산 저 산 구르던 돌도 유구한 시간 속에 같은 땅에서 만나 인연을 맺은 것은 기적에 가깝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참고 견디는 과정이 필요했을까. 하물며 세계관이 다른 남녀가 인연을 맺고 백년해로하기란 빗방울이 바위를 깎아낼 만큼 긴 세월이 흘러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기와 감정의 과도에 휩쓸려 짝의 손을 놓으면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

오랜 세월 주인을 위해 돌고 돌았던 맷돌, 하지만 위쪽의 어치구니가 썩어서 빠져버리면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러면 둥근 나무에 형질을 두르거나 나무를 납작하게 깎아 끼운 다음 사용했다. 그렇게 어치구니를 돌렸던 할머니와 어머니의 손끝에서 곡물을 갈아 가족의 허기를 달래며 삶을 일구었다.

우연히 시골집 정원에 놓인 맷돌을 만나자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마음이 설렌다. 세월의 결이 킁킁이 쌓여 있고 표면이 거울처럼 반들해서 내 모습이 비칠 것 같다.

이 집 맷돌의 새로운 변신인가. 곡물을 갈던 오목한 면에 꽃씨가 날아들어 향기로 사람과 소통한다. 주인의 정서가 깃든 맷돌을 보다가 우리 부모도 서로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 데 긴 시간이 걸렸다. 살아오면서 서로를 믿어 주며 닳아 왔기에 연두부처럼 말랑한 사이가 되었다. 이제 돌고 돌았던 삶의 맷돌에 사랑의 향기를 가득 실으려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더 멀리 달려가리라.

짜은 인연

우수상 | 황분란

비가 왔다 하면 세상이 잠길 것처럼 많이 내렸다. 내일도 계속된다는 비 소식에 걱정이 되어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때 걸려온 믿을 수 없는 한 통의 전화. 어제까지만 해도 다정한 목소리로 농담도 하면서 우리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자며 전화했던 언니가 가족과 형제들을 모두 버리고 먼 길을 떠났단다. 나이가 있어도 그렇지, 질병이 있어 병원을 들락거린 적도 없는데 잘못 들었는지 귀를 의심했다.

나는 집을 비우기 어려운 입장이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문상을 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 다행히 마산 가는 고속 열차를 예매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서울역으로 갔다. 그때까지도 폭우가 계속되고 있었다. 제 시간에 출발해야 할 열차는 사십 분이 지나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한다는 안내 방송이 있었다. 출발이 늦었으니 도착도 늦겠다.

마산까지 갔다가 올라오려면 한시가 급한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두 시간쯤 머물다 올라와야 하니 돌아오는 차는 딸이 예매해 두었다고 문자가 왔다. 지금도 차창 밖에는 장대비가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고 있었다. 급한 마음을 억누르며 허둥지둥 영안실을 찾았다.

슬픔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느낄 수 있는 법이다. 한복을 곱게 입

은 언니의 영정 앞에서 왜 이렇게 장대비 속에 나를 부르느냐고 따지고 싶었다. 그러나 말이 없는 언니를 원망 반 슬픔 반으로 인사하고 돌아보니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피붙이들이 이모 고모하면서 손을 잡는다. 이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내 입장이 그렇지 못했다. 짧은 만남을 아쉬워하며 자리를 떴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비가 계속 쏟아지고, 나를 마산역까지 데려다 준 동생은 이미 돌아가고 없었다. 기차에 올라 지정된 자리로 가니 중년의 남녀가 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차 안에는 자리가 거의 비었는데 하필 내 자리에 앉아 있다니. 혹시 이 자리가 맞느냐고 묻자 다시 승차권을 보더니 잘못 앉았다면서 일어나려 하기에 그냥 있으라고 했다.

다른 자리는 많이 비어 있었고 그 두 분은 사촌 남매간이라고 했다. 출발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차가 움직일 생각을 앉았다. 마음이 급한 나는 너무 답답했다. 그때 폭우로 철도가 중단되어 운행할 수 없으니 내려가서 환불을 받으라는 안내 방송이 있었다.

당황했지만 매표소로 가니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나도 환불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보니 기차에서 자리를 양보하면서 말을 건네던 남매란 분들도 내 뒤에 서 있었다. 비가 너무 많이 와 고속버스 운행도 중단되었다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환불을 받은 뒤 이제는 택시를 타야 어디든 움직일 수가 있었다. 택시 타는 곳으로 가서 또 줄을 섰는데 그 두 분도 나와 똑같은 입장이었다. 줄은 섰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어떤 외국인이 “서울로 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라며 영어로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외국인과 대화한 사람은 마침 승합차를 가진 분이였다. 그분도 기차가 못 가게 되어 혼자라도 서울로 가야 하나 하던 참이었다고 했다.

택시를 타려고 서 있던 남자분이 나를 보고 줄 서 있는 자리를 좀 부탁한다면 몇 걸음 앞으로 나갔다. 그가 바로 기차에서 내 자리에 앉아 있던 분이였다. 영어에 능통했던 그분은 두 분의 대화를 알아듣고 같이 가자고 부탁하고 있었다. 그때 눈치를 채 나도 서울로 가면 동행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이야기하니 간절함이 통했는지 함께 가자고 했다.

출발하지 못한 기차에서 안면이 있던 덕으로 그분들도 같이 가자고 도와주었다. 순식간에 다섯 명이 승용차에 합승하게 되었다.

길이 미끄럽기도 하거니와 안전을 생각해서 다섯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갈 일이 막막하던 내 입장에서는 천우신조라는 말을 이럴 때 써도 되나 가슴을 쓸어 내렸다. 차비는 삼만 원씩만 내라고 했다. 그 말이 천사처럼 들렸다. 저녁 안 먹은 것은 같은 처지라 휴게소에서 밥을 먹으며 얼굴도 익혔다.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동행하게 되다니 사람의 인연이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좁은 공간에서 잠이 와서는 안 된다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내 자리에 앉았던 두 분도 나와 같은 고속 열차로 내려와서 문상하고 올라가는 길이었다. 이런 인연이 또 없다며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서울역에 도착하니 밤 열두 시가 지났다. 연락처도 주고받았다. 꼭 한 번 자리를 만들자며 바쁜 걸음으로 헤어졌지만 짧은 인연은 거기서 끝이 났다.

영정 앞에서 경황없이 아쉬운 인사를 하고 나왔기에 하루가 지나고 나니 더욱 허전했다. 언니와 늘 통화하던 전화기를 보고 있는데 하얀 항아리에 언니의 이름이 새겨진 사진이 올라왔다.

이승의 인연이 끝났다는 사실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리가 들리자 다음 날 가루가 되었다니. 성인 한 사람의 뺨가루는 한 되 반이라고 한다. 허망하다. 무섭다. 죽

음이 두렵고 불쌍하다. 죽는다는 말을 겁도 없이 가볍게 하면서 살아왔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깊은 생각도 없이 쉽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말을 가려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언니는 가족 누구에게도 성가시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도 축내지 않고 고통도 혼자 감당하며 평소의 성격대로 떠났다. 지금은 안타깝지만 얼마간 지나고 나면 죽음 앞에 복이라고 할 수 있다니 이것이 순리인가 해서 좋은 곳에 가시라고 빌어 드려야겠다.

한가지에서 태어난 우리는 보고 싶으면 언제라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았는데, 어느새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둘 자리를 비운다. 몇십 년을 함께한 인연도 짧게만 느껴진다. 생각하면 아쉽고 안타깝다. 금방이라도 언니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다. 하얀 향아리 사진을 안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니 흐릿한 언니의 환영(幻影)이 지나가는 듯했다.

커다란 빈자리를 지금도 메꾸고 있습니다

차상 | 김미경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인생의 반세기 동안 일상생활을 같이 해온 시어머님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드릴까 합니다.

먹먹함에 지금 안 계신다는 현실의 상실감에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지금에서야 조금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2년 후부터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살면서 20년이 지난 작년까지만 해도 어머님이랑 같이 자고 웃고 울고 TV 보고 라디오도 같이 듣고 식탁에서는 휠체어에 앉으신 어머님과 함께 같이 밥 먹고, 어머님이랑 모든 걸 같이 동고동락(同苦同樂)했기에 더더욱 먹먹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결혼하기 전부터 엄마라고 불러서인지 결혼 후에도 자연스럽게 어머님에게 엄마라고 불렀기에 어머님을 모시고 식당을 가든 병원을 가든 모든 분들이 절 딸로 알고 계실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이 지체 장애 2급이셔서 목욕도 시켜 드리고 대소변도 제가 다 처리해 드리는 상황에 작년 이맘때쯤 자택에서 소천하신 날부터 저의 먹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자택에서 끝까지 모시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인지 병원 장례식장 관계자분들, 상조업체 관계자분들, 조문 오신 모든 지인분들이 한결같이 칭찬 말씀들을 하시던데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상황과 여

건이 되어서 모셨기에 부끄럽고 더 잘못 모셨다는 자책이 더 클 뿐인
며느리입니다.

엄마와는 속된 말로 다른 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엄마와 저의 케
미가 좋아 모든 걸 다 함께 더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더욱 한방에서 같이 자고 TV에 나오는 트롯트도 소리 내어 같이
부르고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나오면 서로 애통해하고 좋은 소식
이 나오면 서로 기뻐하고 환호하고 모든 일상을 같이 공유했기에 20
년이라는 기간이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고 물 흐르듯 시간이 간 것 같
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랑 떨어져 지낸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
아서인지 지금까지도 조금은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엄마를 기점으로 다섯 식구가 이렇게 복잡복잡 같이 지낼 수 있어
서 더 행복했던 가족이었습니다. 마음까지 예쁜 두 딸들이 할머니 목
욕이며 대소변 처리에 도움을 많이 줘서 엄마에게 조금이나마 더 효
도를 해드린 것 같아 마음이 한결 놓였던 점도 있습니다.

맛있는 주전부리가 있으면 할머니 드린다고 학교에서 오자마자 할
머니 입에 넣어 드리고 어버이날엔 우리 부부보다 할머니 먼저 가슴
에 카네이션 꽂아 드리고 수시로 할머니 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모습
에 저의 입가에도 울 엄마 입가에도 행복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답니
다. 비록 몸은 불편하셨지만 마음만이라도 울 엄마의 삶이 더 흐뭇하
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큰 역할의 대들보 엄마가 돌아가시니 울 엄마의 추억이 고스란
히 묻어 있는 집안의 모든 물건들로 인해 일상이 무너져 버리더군요.

진짜 인생의 한 부분을 오롯이 빼앗긴 느낌이었을까요.

지금도 아이들이 저를 부르면 저도 모르게

“네~ 엄마, 같게요.”가 저절로 나오는 현실이 되어 가구요.

또다시 멍멍함과 상실감에 맥이 탁 풀린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죠.

친척분들은 청춘을 다 바쳐서 모셨다고 저를 칭찬해 주시지만 이건 희생이 아니라 울 엄마가 제 청춘의 인생 계단을 같이 걸어가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얕은 제 생각에 엄마의 깊은 생각을 말씀해 주면 전 엄마한테 또 한 가지의 인생 지혜를 배우고요. 엄마와의 추억 일상이 있어서 행복한 마음에 조금은 멍멍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었답니다. 모든 일상 생활에 울 엄마가 절 지켜보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울 엄마!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훌륭한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세요.

불편한 진실

차상 | 조연수

제 이름은 똑바로,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토마토, 기러기, 역삼역... 변호사 우영우가 자신을 소개할 때 시작하는 멘트이다.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변호사이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관심과 인기가 높은 드라마였다. 나도 본방 사수하는 열혈 시청자 중 하나였다.

드라마를 시청하는 내내 나는 나의 친구와 그녀의 아들이 가슴속에 들락날락거렸다. 친구의 아들은 아스퍼거 증후군이다. 자폐증과 유사한 사회 적응의 발달이 지연되어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많은 신경 정신 질환이다.

내가 그 애를 처음 만났을 때는 아빠를 쫓 빼담은 뽀얀 아기였다. 그 후 서너 살 때는 사내아이라 어수선하고 말도 느리다고 인지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친구는 아이가 유별나고 좀 어딘가 다른 거 같다고 얘기했지만 주변에서는 남자아이라 이만할 때 그럴 수 있다고 특별하지 않다고 다독겨려 주었다.

그 뒤 친구는 아들 때문에 몇 번이나 학교에 왔다 갔다 하고 많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 애가 아스퍼거 증후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애 나이 12살, 5학년 때였다. 약물, 심리 치료, 미술 치료를 병행하고 힘겨운 극복의 시간을 친구는 묵묵히 함께 하고 있었다. 치료 효과는 좋았고 호전되어 가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였다.

중학교에 진학해서 친구들과의 다툼 등 몇 번의 사고가 있었고, 집

안에도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덧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다름(후유증)이 티가 나지 않도록 생활을 잘하고 있다.

친구는 이런 말을 했다. 아들이 친구끼리 똑같이 싸우고 심지어 상대 친구가 더 잘못했는데도 무시하며 하대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제일 화가 난다고 했다. 그럴 때면 눈물이 절로 난다고 했다.

얼마 전 종영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다운 증후군 영화라는 캐릭터가 등장했다. 영화를 처음 보는 그녀 언니의 연인은 이렇게 말한다.

“영희 누나 보고 놀랐어요. 난 그럴 수 있어요.”

“다운 증후군 처음 보는데 놀랄 수 있죠. 그게 잘못 났다면 미안해요.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나 그 어디에서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심장 깊은 곳에 꽂히는 대사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걸까, 불편한 걸까? 장애인이지만 천재 변호사, 다운 증후군이지만 화가,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이 모두 드라마 속 주인공들 같지만은 않다. 나는 내 친구의 호소와 그 아들이 조금은 불편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던 건 아닐까.

불멸의 영웅 이순신

최우수상 | 안지우_서울남산초

조선의 땅 끝에 펼쳐진
푸른 바다 한가운데
날카로운 칼을 품은
충무공 이순신의
숨결이 느껴지네

간신배의 모함으로
억울한 옥살이와 유배를 떠나도
나라를 향한 그의 애국심은
멈추지 않아

열두 척의 배로 바다를 가르니
종이배처럼 우수수 부서지고 만
300척의 왜선

그의 기백에
깊은 바닷속에도
우렁찬 호령이 들려오고
물결은 잔잔히 춤을 추고

중구문예문학상

하늘은 감동했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한
그의 영혼은
바다도 세월도 없애지 못해

대한 바다를 지킨
불멸의 영웅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네

무지개 자전거

우수상 | 이준서_서울송례중

햇살이 반짝반짝 자전거 비취
 무지개 빛깔 번쩍번쩍
 페달을 콧코 밟아 주면
 놀이터까지 승승승!
 껌딱지처럼
 나랑 자전거는 하나
 신나는 나의 발
 바람이 살랑 자전거 미소
 안장에 콧코 앉아 보면
 꼭꼭 붙어 어디든 가요

지구의 SOS

우수상 | 정 단 아_서울세류초

지금 지구는
뜨거운 숨을 몰아쉬는 용암 같아
지구의 온도를 잡아 주던
북극의 빙하는 빠르게 녹아내리고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타오르며
우리나라의 사계절도 흐릿해지고 있으니까

지금 지구는 우리에게 SOS를 보내고 있어
더는 견딜 수 없다고
이대로라면 버틸 수 없다고
간절히 외치고 있어

잠시 귀를 기울여 봐
우리가 걸어갈 작은 선택들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로 이동하기
불필요한 전기 끄기
지구를 향한 조그만 손길 하나하나가
지구의 외침에 응답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될 거야

우리 안의 동물들

차상 | 강명승_서울잡현초

우리 안 동물들을 보며
동물들의 마음은 생각 안 한 채
그저 웃고 떠드는 우리

그런 동물들은
자신들을
구경하는 우리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자신을 가두고 구경하는
사람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건
동물들이겠지만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보면
사람들을 증오하고

중구문예문학상

바깥세상을 꿈꾸고 있을지도 몰라

동물들의 울음소리는
 사실 자유를 달라고 소리치는
 일종의 독립운동은 아닐까

동물원의 울타리가
 조금씩 낮아지고
 자유의 바람이 스며든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과 동물이 함께 숨 쉬는
 진짜 세상이 열릴지도 몰라

소나기

차상 | 이윤주_서울잠현초

나는 소나기가 좋아
마치 나 대신 울어 주는 것 같아

가슴속 슬픔이 가득 차오를 때면
참지 않아도 괜찮아
소나기 속 눈물은
빗물에 스며 조용히 사라지거든

자연스레 내리는 비
자연스레 흐르는 내 마음

실컷 울고 나면
가벼워진 마음을 아는 걸까
소나기는 어느새 조용히 그치고
무지개가 내 마음 위에 살며시 떠올랐어

아빠 냄새

차상 | 이정원_서울잠현초

띠리링
 밤 12시
 우리 집에 전화벨이 울린다

오지 않는 아빠를
 기다리느라
 잠이 안 와도 아닌 척
 기다리면서 자는 척

아빠가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불러도
 대답없이 눈을 감는다

아빠가
 내 이마에 뽀뽀를 해도
 모르는 척
 더 자는 척

아빠가

잘 자네라고 해도
입술을 꼭 다문다

문이 닫히고
기다리던 아빠의 냄새가
내 방에 가득 찼다

오래 기다리던 시간들이 떠올라
눈 뜨고 입을 열어
소리 내어 울었다

유령의 진짜 모습

차상 | 최재원_서울잠현초

천둥 번개가 치는 날
살금살금 다가와
내 마음을 서늘하게 만드는 유령

어두운 밤
소리 없이 다가와
슬며시 손을 잡는 유령

가끔은 깜짝 놀라게 하지만
웬지 모르게 친근한 그 유령

눈을 뜨면
어김없이 내 곁에 와 있는
유령 같은
내 동생들

하나의 돌멩이와 작은 풀잎이 만들어 낸 신비

라은채 | 시인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그의 시 〈순수의 전조〉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한 알의 모래 속에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이처럼 글을 쓴다는 것은 일상의 소소한 것에서 특별한 가치를 발견하고, 작고 평범한 것에서 감동과 희열을 느끼는 고도의 정신작용이다. 무심코 보낸 흔하디흔한 주변의 사물과 개체에서 고유한 의미를 찾고 자신만의 시선으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것은 글을 쓰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다채로운 특권이다.

심오한 정신세계로의 여행에서, 소월에 의해 재탄생된 ‘진달래꽃’의 의미와 영랑이 노래한 ‘모란꽃’의 ‘보람’을 되짚어 보고, 김수영이 만들어 낸 ‘풀’의 언어 속에서 벽찬 환희와 신선한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올해 ‘중구문예문학상’ 응모작 상당수는 학생·일반 가리지 않고 깊은 통찰과 자조 그리고 긍정의 미학을 표상한 작품들이 주조를 이룬다. 우선 일반부 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오 청의 〈잃어버린 허공과 남은 허공의 여백 사이에서〉는 사유의 깊이와 적절한 비유법 활용이 돋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땀방울은 산을 허물면서/ 늙은 박으로 철들게 했지만/ 쓰레기처럼 켜켜이 쌓여 간다”에서 보듯 언어를 직조하는 기술이 예사롭지 않다.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중구문예문학상

우수상의 김완수는 <가을 내장산>에서 자연과 물아일체가 되어 유유자적하는 삶의 자세를 조망한다. 이는 자연과 사물을 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관조하는 태도를 견지했기에 가능할 터이다. <네가 아는 나는 내가 아니다>로 우수상을 수상한 김영희는 일상에서 부딪히는 복잡다단한 감정선을 역설의 미학으로 풀어낸다. 희로애락·미련·그리움·욕망 등 인간이기에 살아가면서 마주해야 하는 수많은 감정 소비, 화자는 끊임없이 성찰하고 인내하고 때로는 침묵하는 미덕으로 부단히 다잡는다.

<엄마의 반딧이>로 차상을 수상한 김경희는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에 대한 애달픈 마음을 애뜻한 문장 속에 녹여냈고, 이수미는 <종로3가의 기억>에서 순수했던 젊은 시절을 소환하며 그리운 마음을 진솔하게 담아낸다. 역시 차상을 수상한 조혜숙은 <밤술>에서 식사 자리에서 오고 가는 가족 간의 훈훈한 정을 재미있게 풀어냈고, 최은경은 <11월의 사색>에서 통찰의 미학을 보여 준다. ‘비움’과 ‘고요’와 ‘견딤’을 통해 비로소 빛으로 채워지고, 깊은 정신세계에 도달하게 됨을 간결한 문장 속에 엮어낸 것이다.

일반부 수필 부문에서 <숨바꼭질>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미령은 탄탄하고 빼어난 문장이 돋보인다. ‘숨바꼭질’이라는 놀이를 통해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배려를 환기하고 현재 자신의 일상적 행위와 등치시키며 상징의 기법까지 활용하는 높은 글쓰기 수준을 보여 준다. 앞으로 더욱 눈부신 발전이 있기를 성원한다.

우수상의 최점순은 <땀돌 같은 사랑>에서 안정된 글쓰기를 보여 주는데, 제 몸을 깎아 임무를 완수하는 ‘땀돌’과 모난 부분을 끌어안고 사는 부부의 삶을 유추시키는 묘수가, 황분란은 <짧은 인연>에서 일상생활에서 드물게 겪게 되는 특별한 인연을 흡인력 있는 문장으로

긴장감 있게 담아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차상을 수상한 김미경은 〈커다란 빈자리를 지금도 메꾸고 있습니다〉를 통해 시어머니와의 정겨운 추억을 회상하고, 〈불편한 진실〉의 조연수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구성원들의 성숙한 의식을 고민하는 내용이 큰 울림을 준다.

학생부 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불멸의 영웅 이순신〉의 안지우는 어린 학생답지 않은 성숙한 사고와 글쓰기 실력을 보여 준다. 짧은 시 안에 충무공 이순신의 뛰어난 삶의 궤적을 담아내고 있는데, 문장을 끌고 가는 힘과 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돋보여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학생의 앞길에 문학의 기운이 꾸준하길 응원한다.

우수상을 수상한 이준서는 〈무지개 자전거〉에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잘 활용하여 자전거 타고 달리는 화자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이미지화하는데 성공한다. 거침없고 천진한 표현이 마음을 움직였다. 역시 우수상의 정단아는 〈지구의 SOS〉에서 지구를 걱정하는 마음을 구체적이고 강력한 시어에 담아 주문한다. 비유법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주제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됐다.

차상을 수상한 강명승은 〈우리 안의 동물들〉에서 우리에게 갇힌 동물들에 감정이입을 하며 인간이 만든 폭력적이고 잔인한 제도에 비판의 시선을 던진다. 사람과 동물이 자유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는 어린 학생의 따뜻한 시심이 마음을 두드린다. 이윤주는 〈소나기〉에서 자연물과 화자의 우울한 마음을 동일시하며, 스스로 정화하게 되는 심리 변화를 진솔하게 표현했고, 〈아빠 냄새〉의 이정원은 오지 않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섭섭함, 반가운 마음 등 복잡미묘한 정서를 자세하고 솔직하게 묘사한 점이 돋보인다. 역시 차상 수상자 최재원은 〈유령의 진짜 모습〉에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유령’을 ‘친근한

중구문예문학상

동생' 으로 치환하는데, 독특한 비유와 전개 과정이 참신하다. '유령' 이라는 낯선 시어로 세련된 문장을 만들어 가는 힘이 탁월해 앞으로 꾸준한 발전이 기대되는 학생이다.

'중구문예문학상' 을 수상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리며, 다채롭고 도저한 글쓰기의 해원에 향해하게 됨을 큰마음을 담아 환영한다. 푸르른 물결 위에 오묘하고 심원한 물길이 반짝반짝 열리길 힘차게 응원한다.

중구의 문학 강좌



●문학 강좌 안내●

중구문화원 - 월요일 수필, 금요일 시 강좌

한국여성문예원 - 화요일 수필반, 목요일 시창작, 금요일 시낭송 강좌

중구문화원 월요 수필, 금요 시 강좌

〈연혁〉

2006년 2월~4월	수필 강좌(강사: 수필가 정목일)
2006년 5월~7월	시 강좌(강사: 시인 문효치)
2006년 8월~10월	수필 강좌(강사: 수필가 정목일)
2006년 11월~2007년 1월	시 강좌(강사: 시인 맹문재)
2007년 2월~12월	목요 시 강좌(강사: 시인 오철수)
2007년 7월~12월	월요 수필 강좌(강사: 소설가 윤동수)
2008년 1월~3월, 7월~12월	월요 수필 강좌(강사: 수필가 손광성)
2008년 4월~6월	월요 소설 강좌(강사: 소설가 유현중)
2008년 1월~6월, 12월	목요 시 강좌(강사: 시인 오철수)
2008년 7월~8월	목요 시 강좌(강사: 시인 황학주)
2008년 9월~11월	목요 시 강좌(강사: 시인 고희렬)
2009년 2월~12월	목요 시 강좌(강사: 시인 유자효)
2009년 2월~12월	월요 수필 강좌(강사: 수필가 손광성)
2010년 1월~12월	목요 시 강좌(강사: 시인 유자효)
2010년 1월~12월	월요 수필 강좌(강사: 수필가 손광성)
2011년 1월~12월	목요 시 강좌(강사: 시인 유자효)
2011년 1월~12월	월요 수필 강좌(강사: 수필가 손광성)
2012년 1월~12월	목요 시 강좌(강사: 시인 유자효)

2012년 1월~12월	월요 수필 강좌(강사: 수필가 오병훈)
2013년 1월~12월	목요 시 강좌(강사: 시인 유자효)
2013년 1월~12월	월요 수필 강좌(강사: 수필가 오병훈)
2014년 1월~12월	금요 시 강좌(강사: 시인 유자효)
2014년 1월~12월	월요 수필 강좌(강사: 수필가 오병훈)
2015년 1월~12월	월요 수필 강좌(강사: 수필가 오병훈)
2016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17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18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19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20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21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22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23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24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25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강의 시간·장소〉

월요 수필 강좌: 매주 월요일 오후 3시~5시, 중구문화원 강의실

금요 시 강좌: 매주 금요일 오후 4시~6시, 중구문화원 강의실

어반스케치 강좌: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중구문화원 강의실

한국여성문예연 화요 수필반, 목요 시창작, 금요 시낭송 강좌

〈연혁〉

2009년 9월~11월	시낭송 강좌(공혜경, 성병숙 외)
2010년 3월~11월	시낭송 강좌(장충렬, 성병숙, 공혜경, 유형준)
2011년 3월~11월	시낭송 강좌(장충렬, 성병숙, 이진화, 박도현)
2013년 3월~11월	시낭송 강좌(장충렬, 성병숙, 이진화, 박도현)
2014년 3월~11월	시낭송 강좌(성병숙, 이진화, 박도현)
2017년 3월~11월	시낭송 강좌(박도현, 이주은, 신찬혁 외)
2018년 3월~11월	시낭송 강좌(이주은, 신찬혁, 권혁우, 이진화 외)
2010년 4월~8월	시창작 강좌(강사: 시인 임곤택)
2010년 9월~12월	시창작 강좌(강사: 시인 박성현)
2011년 1월~12월	시창작 강좌(강사: 시인 박성현)
2012년 1월~12월	시창작 강좌(강사: 시인 이승희)
2013년 1월~12월	시창작 강좌(강사: 시인 이승희)
2013년 5월~10월	수요인문학 강좌(강사: 소설가 유현중 외)
2014년 5월~10월	수요인문학 강좌(강사: 소설가 유현중 외)
2015년 1월~12월	수요인문학 강좌(강사: 소설가 유현중 외)
2018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19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20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21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22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23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24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25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강의 시간〉

화요 수필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8시 30분

목요 시창작: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8시

금요 시낭송: 매주 금요일 오후 3시~5시

〈강의 장소〉

화요 수필반: 한국여성문예원 강의실

목요 시창작: 한국여성문예원 강의실

금요 시낭송: 광희동 주민자치센터 5층

아름다운 마무리

이이향 | 편집장 |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한 해가 또 저물어 간다. 거스를 수 없는 순환 속에서 삶을 관통하는 화두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즈음이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매해 더해지는 기후 위기와 경제 압박, 정치적 혼란을 지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미세한 빛을 나누듯 《중구문예》를 마무리한다.

《중구문예》는 중구민을 위한 문학 나눔터이다. 문학이 어떻게 우리 삶을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 거창하게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작은 모임 자리에서 시 한 편을 소리 내어 읽는 순간 평온해지는 마음들을 공유할 수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울시의 한복판 도시인으로서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 중구민들에게 《중구문예》는 이처럼 우리 이웃의 내밀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작은 피난처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특히나 올해는 중구문화원 개원 30주년, 중구민 시낭송대회 20주년, 명동 시낭송콘서트 10주년 등을 기념하는 행사로 중구민의 정서를 고양시키는 자리가 많았던 해이기도 하다.



《중구문예》지면에 실린 이러한 행사 후기를 비롯해 소중한 시 1편, 수필 1편, 이웃의 소소한 이야기나 독후감들 이런 문학적 감성을 깨우는 글들이야말로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가득한 이 도시에 신선한 산소가 되어 줄 것이다.

소리도 없이 한 해가 또 저물어 가지만 강물 같은 시간의 흐름에서 우리 가까운 이웃들과 삶의 소소한 기쁨과 슬픔을 들여다보며 잠깐의 위로와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중구문예》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조금은 아름다운 한 해 마무리가 되리라 믿는다.

《중구문예》의 지면을 희망과 위로의 언어로 따뜻하게 채워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 많은 분들의 훈훈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6년
제24회 《중구문예》 문학상
작품 공모

2026년 제24회 《중구문예》 문학상 작품 공모는
새로운 모습으로 문학상 응모자 여러분께 중구
문화원 홈페이지(www.junggucc.or.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2025

증구문예

발행처 | 서울증구문화원

편집인 | 한국여성문예원

발행일 | 2025년 12월 30일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증구문화원

우편번호 04541

전 화 | 775-3001

F A X | 775-3068

〈비매품〉

*《증구문예》에 실린 글과 사진은 증구문화원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증구문예》에 실린
모든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이 책자는 시비를 지원 받아 발간하였습니다.

